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 소 우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코퍼스를 이용한 영어동사의 수동태

비율에 관한 연구분석

- give, tell, teach 동사를 중심으로 -

201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박진희

코퍼스를 이용한 영어동사의 수동태  
비율에 관한 연구분석

- give, tell, teach 동사를 중심으로 -

정 소 우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박 진 희

# 인 준 서

박진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11월

심사위원장 고 정 민 인

심 사 위 원 정 소 우 인

심 사 위 원 이 용 은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한국어에서는 수동태로 거의 쓰이지 않는 ‘*We are taught English by Mr. Johns*’, ‘*We were given some oranges by her*’, ‘*I was told that she is very kind by him*’ 과 같은 4형식 동사의 수동태 문장을 과연 원어민 화자들은 어느 정도로 사용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점에서 출발하였다. 대용량 원어민 코퍼스인 BNC, COCA, COHA를 분석도구로 하여 give, tell, teach동사의 수동태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평균 8.4%로 한국어와 비교하면 원어민들은 이와 같은 수동태 문장을 실생활에서 비교적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등학교 I, II 영어교과서에서 세 동사의 수동태 비율을 살펴본 결과, 9.45%로 나타났으며 전체 수동태 비율은 총 문장수 35,401개 중 수동태 문장은 3,243개인 9.1%로 코퍼스 분석결과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장르별로는 코퍼스의 give, tell동사 수동태의 경우 Academic과 News에서는 높은 비율로, Fiction과 Spoken에서는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교과서에서 세 동사의 수동태 비율이 구어체에서보다 문어체에서 6배 정도 높게 나타난 것과, 전체 수동태 문장의 비율 또한 구어체에서보다 문어체에서 2배 정도 많이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교과서에 제시된 소설에서 수동태 비율이 1.7% 정도로 현저히 낮게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다만, teach동사 수동태의 경우에는 Spoken에서 오히려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 BNC의 Academic에서 낮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특이할 만한 점이다.

시제별로 살펴본 코퍼스의 give, tell, teach동사 수동태의 빈도수는 평균적으로 현재> 과거> 현재완료> 진행> 과거완료> 미래 순으로 나타났고 tell동

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BNC와 COCA에서 과거시제의 비율이 현재시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교과서에 나타난 전체 수동태 문장의 시제별 빈도수는 현재>과거>현재완료>미래>진행>과거완료의 순으로 코퍼스의 빈도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교과서에서 세 동사의 수동태의 시제별 빈도수를 살펴본 결과, give동사의 경우 lesson에서 ‘You will be given 2 minutes’ 라는 지시문이 자주 제시됨으로 인해 현재시제와 미래시제가 43.4%로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Tell동사의 경우, 코퍼스에서와 마찬가지로 과거시제의 비율이 47.83%로 현재시제보다 2배 정도 높았는데, 이는 이는 흔히 대화에서 ‘듣는다’,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과거에 ‘어떤 얘기를 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영어에서도 같은 이유로 과거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여진다. Teach동사의 경우 능동태, 수동태를 합한 전체 빈도수가 현저히 낮았고 수동태의 비율도 5.48%로 제일 낮게 나타났는데, 그 중 현재시제가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었다.

교과서에 제시된 전체 수동태 동사의 시제분석결과 미래, 진행, 과거완료시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교과서도 있었는데, 수동태는 영어에 비해 한국어에서는 쓰임이 적고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까다로운 개념이므로 교과서에서 다양한 수동태 시제를 제시하고 유의미한 활용에 이르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코퍼스에서 세 동사의 수동태를 be수동태와 get수동태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be수동태 99.6%, get수동태 0.4%로 나타났고 교과서에서 전체 수동태 동사의 수동조동사의 빈도수를 살펴본 결과, be수동태 96.15%, get수동태 2.19%, become수동태 0.74%, grow수동태 0%, 사역수동태 0.93%로 나타나 be수동태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교과서마다 get수동태와 be수동태와의 의미차이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았으며 get수동태나

become수동태, 사역수동태가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교과서도 있었는데 이러한 수동조동사에 대해서도 다양한 예문과 함께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과서에 나타난 전체 수동태 동사의 제시방식을 살펴보면, 어떤 맥락에서 수동태가 쓰이는지의 부가적인 설명이 없었고 대부분 다양한 수동태를 제시하고 있지 않았는데,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문맥에서 다양한 수동태 형태를 제시하고 능동태, 수동태의 의미차이 및 어떤 경우에 수동태가 선호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자연스러운 활용에 이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EFL환경에서 영어교과서는 가장 기본적인 학습의 매개체로써 교과서에 제시된 수동태의 비율, 유형 등은 학습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원어민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그들의 실제적인 언어사용용례를 담고 있는 교재의 편찬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코퍼스를 활용하여 원어민들의 실질적인 언어사용을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실언어수업에 있어 교사는 다양한 문맥 속에서 여러 가지 형식의 수동태 문장을 제시하고 원어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집합체인 코퍼스를 보조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구성 .....	6
II. 이론적 배경 .....	7
1. 코퍼스와 코퍼스 언어학 .....	7
2. 態(태) .....	10
2.1. 능동태와 수동태 .....	10
2.2. 수동태가 사용되는 경우 .....	16
2.3. ‘by 행위자’의 생략과 명시 .....	20
2.4. 상태수동태와 동작수동태 .....	22
2.5. 서술형용사와 수동태의 구분 .....	27
2.6. 중간태 .....	29
2.7. 사역수동태와 경험수동태 .....	32
3. 선행연구 .....	34
III. 연구분석 .....	40
1. 연구분석대상 및 방법 .....	40
2. 코퍼스 분석 .....	43
2.1. 능동, 수동태 동사의 비율 .....	44
2.2. 능동, 수동태 동사의 시제별 빈도수 .....	45

2.3. 수동태 동사의 현재, 과거, 미래시제에 따른 빈도수 .....	49
2.4. 능동, 수동태 동사의 장르별 빈도수 .....	53
3. 교과서 분석 .....	57
3.1. give, tell, teach동사의 수동태 .....	58
3.2. 수동태 동사의 비율 .....	63
3.3. 수동태 동사의 유형 .....	72
3.4. 구어체, 문어체별 수동태 동사의 비율 .....	74
3.5. 수동태 문장의 시제별 빈도수 .....	77
3.6. 연구결과분석 .....	85
IV. 결론 및 제언 .....	92

참고문헌

ABSTRACT

# I.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화두는 문법위주의 암기식,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난 의사소통능력신장과 이를 위한 효과적인 영어학습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70년대 등장한 의사소통중심접근법(Communicative Language Approach)은 기능적 측면과 의사소통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 언어사용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영어과 제 7차 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영어의 의사소통능력과 실용성을 강조한 말하기, 쓰기 수업이 강조되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어인 영어를 학습하는데 있어 어렵게 느끼는 부분은 아마도 두 언어 간 어순의 차이,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관사, 그리고 한국어와는 다른 구조를 가진 수동태를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학습자의 모국어는 목표어 체계습득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환경 하에서 교사들은 학습자들의 모국어가 어떻게 영어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고 학습자들에게도 이를 인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어는 구조적으로 능동태 지향성 언어이므로 영어 수동태 사용 시에는 통사적이 아닌 의미적, 화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상옥, 1996). 원어민들 간의 대화나 영어회화교재, 미국드라마를 보면 우리말에서는 거의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 'be told', 'be given', 'be taught'와 같은 4형식 동사의 수동태 문장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문을 살펴보면,

(1) a. We *are taught* English by Mr. Johns.

(존스씨에 의해 우리에게 영어가 가르쳐진다.)

b. *We were given* some oranges by her.

(그녀에 의해 우리에게 약간의 오렌지가 주어졌다.)

c. *I was told* that she is very kind by him.

(그에 의해 그녀가 매우 친절하다고 내게 말하여졌다.)

위와 같은 수동태 문장들은 우리말로 직역했을 때 매우 어색하게 느껴지므로 따라서 이런 4형식의 수동태 영어문장들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능동태로 전환하여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2) a. Mr. Johns teaches us English.

(존스씨는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b. She gave us some oranges.

(그녀가 약간의 오렌지를 우리에게 주었다.)

c. He told me that she is very kind.

(그는 그녀가 매우 친절하다고 내게 말했다.)

위 예문에서와 같은 4형식 동사는 직접목적어와 간접목적어를 취하고 기본적으로 주고 받는 관계를 말해주므로 수여동사라 부르기도 하는데, 4형식 동사에는 make, give, find, tell, get, buy, ask, show, build, bring, send, choose, teach, pass, offer, pay, lend, promise, owe, hand 등이 있다. 간접목적어(Indirect Object)는 동사가 하는 행위를 받는 사람을 말하고 인칭대명사의 목적격을 쓰며, ‘~에게’ 또는 ‘~를 위해’로 해석된다. 또한 직접목적어(Direct Objective)는 동사가 하는 행위의 대상인 사물을 말하고 ‘~을,

~를' 로 해석된다.

한국어에서는 영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동태 문장이 적게 사용되는데 영어 단편소설과 한국어 단편소설의 수동태 빈도를 분석한 결과, 국어는 10~14%, 영어는 17~18%로 영어에서의 수동태 사용빈도가 국어에서보다 높게 나타났으며(김원석, 2004) 법정스님의 수필 「무소유」에 나오는 총 1,660문장 중 수동태는 약 3%인 43개로써 영어코퍼스의 사실 17%, 소설 8%, 저널 13%에 비하면 아주 낮게 나타났다(한아람, 2011).

이와 같이 수동태의 사용빈도는 한국어에서보다 영어에서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습자들에게 수동태 학습은 매우 중요하며 영어교과서 내 수동태의 비율, 유형 등은 학습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EFL환경에서는 실제적인 언어사용용례를 담고 있는 교재의 편찬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코퍼스 언어학은 원어민의 언어사용패턴을 파악함으로써 사전이나 교육자료개발, 영어교재제작 등에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다. Chomsky(1957)는 코퍼스에 포함된 텍스트는 작은 샘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로부터 분석해 낸 언어현상은 왜곡된 결과일 수 밖에 없다고 보았지만 최근 컴퓨터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특정언어를 대표할 수 있을 만큼 대용량의 언어자료를 코퍼스로 구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2012, 정보현).

코퍼스의 주요한 기능으로는 언어의 화용론적 의미를 제공해 준다는 것으로 단순히 사전적 정의에서 벗어나 해당 언어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코퍼스기반 언어분석은 특정어휘가 긍정적으로 쓰이는지 부정적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의미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며 특정어휘의 언어적 패턴을 보여줌으로써 언어를

개별요소가 아닌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또한 코퍼스 분석은 언어사용의 빈도를 제공해 줌으로써 해당어휘의 중요도와 쓰임의 정도를 파악하게 하여 어휘학습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박소연 & 윤현숙, 2009). 최근 들어, 원어민 화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국내 영어교과서에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교과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심춘화, 2012)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이 원어민들의 언어사용습관을 지향한다면 실생활에서 원어민들이 어느 정도의 수동태를 사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예로써 BNC(British National Corpus), COCA(The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COHA(The Corpus of Historical American English)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우리말에서는 수동태로 거의 쓰이지 않는 4형식 동사인 give, tell, teach동사의 능동·수동태 비율 및 능동·수동태별 시제와 장르에 따른 빈도수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BNC에서 give동사는 49위, tell동사는 78위, teach동사는 1,016위의 고빈도 동사로써 고등학교 I, II 영어교과서 5종 총 10권에 제시된 전체 동사 46,021개 중 세 동사는 1.84%의 비율을 보였으며 전체 수동태 문장수 3,243개 중 4형식 동사의 수동태 비율이 3.7%인 것에 비해, 세 동사의 수동태 비율은 2.9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교과서 내 4형식 동사의 빈도수는 make, give, find, tell, get, buy, show, build, bring, send, ask, choose, teach의 순으로, 4형식의 동사 중 우리말에서 수동태로 거의 쓰이지 않는 동사들 중에서는 give와 tell동사가 1,2위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였고, teach동사는 7위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수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교수학습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의 성격상 이 세 동사의 수동태의 사용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물론, 이 세 동사의 수동태의 사용

양상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수동태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은 EFL환경에서는 영어교과서의 영향력이 클 수 밖에 없으므로 4형식 동사인 give, tell, teach동사의 수동태가 고등학교 I, II 영어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교과서에 제시된 전체 수동태 동사의 비율과 사용양상에 대하여 분석해 본 후, 이를 교실학습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 1.2. 연구의 구성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과 연구의 구성에 대하여 기술하고 2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이론으로 코퍼스과 코퍼스 언어학, 영어의 태(態), 수동태 문장의 형태, 특성과 쓰임 및 수동태 관련 선행연구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3장에서는 대표적인 코퍼스인 BNC, COCA, COHA에 나타난 4형식 동사 중 give, tell, teach동사의 능동·수동태 비율 및 능동·수동태별 시제에 따른 빈도수와 BNC, COCA에서 위 세 동사의 능동·수동태별 장르에 따른 빈도수를 비교분석하고 수동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be수동태와 get수동태의 빈도수, 미래시제 중 'will be p.p'와 'going to be p.p'의 빈도수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I,II 영어교과서 5종 총 10권을 선정하여 4형식 동사인 give, tell, teach동사의 수동태 비율 및 구어체·문어체별 수동태 비율, 수동태의 시제별 빈도수를 분석해 보고, 교과서에 나타난 전체 수동태 동사를 대상으로 하여 단원별 수동태 비율 및 전체 문장 중 수동태 비율, be수동태와 get수동태를 비롯한 수동조동사의 빈도수, 구어체·문어체별 수동태 비율, 수동태의 시제별 빈도수에 대하여 비교분석한 후,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였으며 4장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영어교과서 제작 시 고려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위하여 교실 수업상황에서 코퍼스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2.1. 코퍼스과 코퍼스 언어학

코퍼스는 체계적인 언어연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말뭉치이자 전산화된 언어자료의 집합체이며 해당 언어의 총체적인 모습을 반영하는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코퍼스는 언어의 다양성과 언어가 쓰인 문맥을 보여주는 자연 언어 텍스트의 모음으로써(Sinclair, 1991) 이는 문자 뿐만 아니라 음성 텍스트의 모음까지도 의미하며 컴퓨터가 저장하고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전자화된 텍스트를 가리킨다(O'Keeffe et al, 2007).

코퍼스를 활용한 연구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언어의 사용을 분석하는 순수 언어학에서 시작하여, 최근 컴퓨터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는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응용언어학 및 외국어 교육분야에서 그 연구분야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다(정보현, 2012).

주요 영어 코퍼스로는 BNC, COCA, COHA 등이 있는데 이 중 BNC World(British National Corpus, World Edition)는 약 1억 단어 규모의 현대 영국영어 코퍼스로써 Oxford대학 출판부 주도의 공동연구 작업으로 1991년 시작하여 1995년에 완성되었으며, Spoken, Fiction, Magazine, Newspaper, Non-Academic, Academic, Miscellaneous의 장르별로 나뉘어져 있다. COHA(The Corpus of Historical American English)는 4억 단어 이상의 규모로써 1810년~2009년간 매 10년 단위로 균형을 맞추어 미국영어의 변화를 업데이트한 미국영어자료이다. 또한 COCA(The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는 4억 5천만 단어 규모로써 1990~2010년 사이의 미국 영어자료에 매년 2회 이상 2천만 단어씩 추가되고 있으며 Spoken, Fiction, Magazine, Newspaper, Academic의 장르별로 구분되어 있다.

코퍼스 언어학(corpus linguistics)은 근본적으로 언어를 연구하는 방법론(Teubert & Krishnamurthy, 2007)으로써 명확한 언어학적 기준에 의해 구축된 전산 코퍼스를 바탕으로 정량적 분석을 추구하며 실제 사용된 언어 자료를 모은 후, 이를 관찰·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규칙을 찾고 이론을 개발하는 과정을 가진다. 코퍼스 언어학은 언어의 특정영역을 연구하는 분야가 아니라 언어학적 연구를 추구하는 방법론적 기반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학 분야와 쉽게 접목될 수 있으며(Leech, 1992) 코퍼스의 가장 중요한 사용목적은 한 언어 내에서 특정한 음성적, 문법적, 담화적, 화용론적 특징들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고 있는지와 그것들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Kennedy, 1998).

이와 같이 코퍼스 언어학은 이전에 관찰할 수 없었던 언어현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주는 실증적 학문으로써 특정분야나 영역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언어학 연구의 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코퍼스 언어학은 언어연구의 대상, 궁극적 목표, 방법론적인 면에서 전통적인 이론 언어학과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을 갖는데, 코퍼스 언어학이 추구하는 연구대상은 Chomsky의 언어능력·언어수행 이분법에 근거한다면 언어능력보다는 언어수행에 분명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코퍼스 언어학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Focus on linguistic performance, rather than competence. Focus on linguistic description, rather than linguistic universals. Focus on quantitative as well as qualitative models of language. Focus on a more empiricist, rather than rationalist view of scientific inquiry(Leech, 1992).”

즉, 이론 언어학이 주로 모국어 화자의 직관을 통해 인간의 언어능력을 언어보편성에 입각한 명시적인 이론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코퍼스 언어학은 실제 사용한 언어를 관찰하고 분석한 통계적 결과를 기술

하며 이를 바탕으로 언어학 이론을 이끌어내는 귀납적인 연구방법을 취하고 있다(고광윤, 2005). 이론 언어학에서는 언어탐구를 사고에 중심을 둔 이성적 문제로 간주하고 예외적이며 특수한 구문의 연구에 집중하는데 반하여 코퍼스 언어학의 입장은 언어탐구를 관찰에 중심을 둔 경험적 문제로 간주하며 많은 언어자료를 관찰하여 전형적이고 핵심적인 언어사용의 유형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코퍼스 언어학은 기존의 언어학에서 추구해 왔던 목표나 방향과는 다른 새로운 연구기획, 언어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접근 및 언어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여는 문이라 할 수 있으며(Leech, 1991) 코퍼스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연구는 현대 언어의 불변성이나 문법의 규범성과 같은 관념에서 벗어나 언어사용의 다양성과 언어분석의 객관적 타당성을 중요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영어교육에서 코퍼스는 어휘의 출현빈도 및 한정된 의미집합에 속하는 다른 단어들과 연어로 쓰이는 많은 단어들을 보여줌으로써 언어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유의어 및 문법적 구조가 비슷한 어휘의 의미적 차이와 실제적인 쓰임을 보여준다(윤나리, 2012). 이렇듯 코퍼스는 다양한 맥락 하에서 실제로 언어가 사용되는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교수요목의 선정과 배열에 있어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교사들은 학습자 코퍼스를 분석하여 특정 학습자 집단이 가지는 문제점을 진단한 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영어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홍선이 & 오선영, 2008).

학습자들은 코퍼스를 직접 탐색하여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아낼 수도 있는데 교실에서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스스로 용례(concordance lines)를 분석함으로써 언어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고 문법적 변이에 대한 직관이 부족한 학습자들은 자연스러운 언어에 노출됨으로써 이를 습득할 수 있으며(Biber, D., Conrad, S., & Reppen, R., 1998) 교사들

은 코퍼스를 통해 보여지는 문법구조와 빈번히 나타나는 특정 어휘들을 참조하여 단순한 문법규칙 대신 관용화된 어휘-문법적 단위(lexico grammatical unit)를 가르칠 수 있다(Larsen-Freeman, 2001).

즉, 코퍼스는 인위적으로 조작된 예가 아닌 실제적인 사용법에 기초하여 어휘운용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EFL 학습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실제로 외국의 경우 이러한 목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교수요목(syllabus)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와 관련한 특수목적 코퍼스개발에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윤나리, 2012). 코퍼스 언어학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다양한 학습상황에 맞추어 적절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예문들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와 교사 모두는 실제 교수상황에서 다양한 용례를 바탕으로 언어를 관찰하고 숙지할 수 있게 되었다.

## 2.2. 태(態:voice)

### 2.2.1. 능동태와 수동태

영어의 태(態:voice)란 문장에 있어서 주어와 다른 객체에 동작을 행하는 표현인 능동태와 주어와 다른 객체에 의해 동작을 받는 표현인 수동태를 말하며 주어와 행위자일 때에는 능동태를, 주어와 행위를 당하는 경우에는 수동태를 사용한다.

“The active voice is the form used when the subject is the actor; the passive voice is the form used when the subject is the receiver of the action(Roberts, 1954).”

한국어의 수동태가 ‘보다-보이다’, ‘잡다-잡히다’에서와 같이 어간에 ‘이, 히’와 같은 수동태 형태소를 첨가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영어의 수동태는 주

어와 목적어의 위치전환 및 동사의 과거분사형으로의 변환과 'be'동사와의 결합, 그리고 행위자 앞에 전치사 'by'첨가라는 여러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3) a. He repaired the bike.(그는 그 자전거를 수리했다.)

b. The bike *was repaired* by him.(그 자전거는 그에 의해 수리가 되었다.)

a문장에서 주어 'He'가 동작을 행한 주체를 의미한다면, b문장에서 주어 'The bike'는 동작을 받은 대상을 의미한다. 즉, <S+V+O>라는 구조에서 타동사인 'repair'를 중심으로 해서 능동태는 주어 'He'가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행위의 주체가 되는 반면, 수동태는 주어 'The bike'가 '~되다, 당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행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동작의 주도권이 주어인 'He'로부터 목적어인 'the bike'로 옮겨가게 되므로 목적어가 문두에 나와서 문장의 주어로 등장하게 된다.

보통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는 수동태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타동사라 할지라도 수동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4) a. They have a nice house.

b. \* A nice house *is had* by them.

c. He lacks confidence.

d. \* Confidence *is lacked* by him.

(과정이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e. John taught himself.

f. \* Himself *was taught* by John.

g. John could see himself in the mirror.

- h. \* Himself could *be seen* in the mirror.  
(직접목적어가 채귀대명사일 경우)
- i. John married Susan.
- j. \* Susan *was married* by John.
- k. John resembles Chris.
- l. \* Chris *is resembled* by John.  
(동사의 의미가 대칭적일 경우)
- m. John hoped to kiss her.
- n. \* It *was hoped* (by John) to kiss her.
- o. \* To kiss her *was hoped* (by John).
- p. John enjoyed seeing her.
- q. \* It *was enjoyed* (by John) seeing her.  
(목적어가 비한정절이거나 부정사나 동명사인 경우)
- r. \* The Pacific Ocean *was sailed* by my brother.
- s. The Pacific Ocean *has been sailed* by the mightiest fleets in history.  
(영향을 받지 않는 의미인 경우)

(Bolinger, 1977)

마찬가지로, 수동태 문장 중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능동태 문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수동태에만 쓰이는 소수의 동사들이 있는데 이러한 동사들은 동사 자체의 어휘적인 특성 또는 구문의 통사적인 특성때문에 수동태로만 쓰여진다. 예문을 살펴보면,

- (5) a. He *is rumored* to be ill.

- b. \* They rumored him to be ill.
- c. He *was said* to do it.
- d. \* They said him to do it.  
(cf: They said that he did it.)
- e. He *was reputed* to do it.
- f. \* They reputed him to do it.  
(cf: \* They reputed that he would do it.)

a문장의 동사 ‘rumor’는 항상 수동태로만 쓰이고 c문장의 ‘say’는 부정사를 보문으로 취할 경우에는 수동태로 쓰이나 절을 취할 경우에는 능동태로 쓰이며 e문장의 ‘repute’는 부정사 보문만을 취하면서 수동태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Quirk et al, 1985).

한편, 타동사는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직접목적어와 간접목적어가 모두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있는 동사

- a. He gave me a book.
- b. A book *was given* (to) me (by him).
- c. I *was given* a book (by him).

Give, award, deny, leave, lend, offer, pay, permit, recommend, refuse, serve, show, teach, tell, wish 등의 동사가 이에 해당된다.

2. 간접목적어만이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있는 동사

- a. I envy him his luck.
- b. \* His luck *is envied* him (by me).
- c. He *is envied* his luck (by me).

Envy, call, kiss, save, spare, excuse, cause 등의 동사가 이에 해당된다.

3. 직접목적어만이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있는 동사

a. He wrote me a letter.

b. A letter *was written* to me (by him).

c. \* I *was written* a letter (by him).

Write, afford, bring, carry, do, ensure, get, hand, intend, mean, pass, reach, read, return, sell, send, sing, throw, yield 등의 동사가 이에 해당된다(김정인, 2002).

영어에서의 수동태는 문장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나 기사나 논문 등에서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 영어의 능동태가 수동태로 전환될 때 단순히 형태만 바뀔 뿐 두 문장의 의미는 동일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의미상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수동태를 활용함으로써 좀 더 섬세하고 간결하며 다양한 영어표현을 할 수 있다(Curme, 1935). 즉, 영어에서의 수동태는 중요하고 특별한 위치를 가지며 능동태로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문장이라 할지라도 수동태로 쓰였을 때는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므로 능동·수동태의 전환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한다.

(6) a. The tiger killed him.

b. He *was killed* by the tiger.

위의 문장에서 a문장이 언제나 자동적으로 b문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서는 안 된다. 주어는 문장의 주체로써 이는 주어가 모든 진술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a문장에서 문법적, 의미적 우위에 있는 것은 ‘tiger’이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반면에 b문장에서도 같이 수동태로 바뀌게 되면 목적어인 ‘He’가 진술의 주체가 되어 표면에 드러나고 능동태의 주어인 ‘tiger’는 2차적인 위치로 물러나게 된다. 태(態)를 다룰 때 유의해야 할 점은 화자나 저자가 의도하였던 뜻을 정확하게 표출하기 위해서는 능동태, 혹은 수동태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조성식, 1998). 왜냐하면 능동태를 쓸 때에나 수동태를 쓸 때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로 인하여 양자택 일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환경 하에서 동일한 의미 및 내용을 가지는 경우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조성식, 1974). 이와 같이 영어에서의 수동태는 단지 능동태의 변형이 아니라 독립된 의미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용론적 쓰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7) a. Everyone in the room speaks two languages.  
 b. Two languages *are spoken* by everyone in the room.  
 c. Few people read many books.  
 d. Many books *are read* by few people.

a문장의 경우는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언어든지 두 가지의 언어를 말한다’는 의미이며 b문장의 경우에는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정한 두 가지의 언어를 말한다’는 의미로 능동태와 수동태 문장이 서로 의미적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Chomsky, 1965). c문장은 ‘단지 몇몇의 사람만이 많은 책을 읽고 있고 있다’는 뜻이고 d문장은 ‘이 세상에 출판되는 수 많은 책들이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읽혀진다’는 뜻으로 매년 엄청난 양의 다양한 책들이 출판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Lakoff, 1968).

### 2.2.2. 수동태가 사용되는 경우

수동태는 능동태에서보다 행위 자체에 더 큰 효과나 관심, 강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쓰이며 객관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신문이나 학문적인 글, 보고서 등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능동주어가 문맥상 분명하여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능동주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거나 모호할 때, 능동주어보다 수동주어를 더 강조하고자 할 때, ‘people’ 같은 막연한 단어를 주어로 쓰는 것을 피할 때 주로 쓰인다.

예문을 살펴보면,

(8) a. The house *was struck* by lightning.

b. The house next door *has been bought*. (by Mr. Johns)

a문장에서는 번개보다는 집이 더 중요한 대상으로써 번개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번개를 맞은 ‘The house’를 강조하기 위해 즉, 능동태보다는 수동태의 문장에서 더 큰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수동태가 쓰였고 b문장에서는 ‘Mr. Johns’ 라는 사람보다는 그가 집을 산 ‘행위’를 더 강조하기 위해 즉, 행위자보다는 그의 행동에 더 관심을 두고자 수동태가 쓰인 경우이다 (Jespersen, 1933 ; Tomson & Martinet, 1986).

다음과 같이 과학논문이나 신문기사 같은 개인적인 아닌 객관적인 문체에도 수동태 문장이 많이 쓰이는데(Quirk et al, 1972) 그 이유는 행위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위자를 주어로 삼는 수동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Leech & Svartvik, 1975).

(9) a. Candidates *are required* to present themselves fifteen minutes

before the examination begins. They *are asked* to be punctual. (공식적인 게시물과 발표문)

b. The search of the bank robbers continues. Meanwhile, many people *have been questioned* and the owner of the stolen getaway car *has been traced*. (언론보도)

c. TRADE AGREEMENTS *BROKEN* ! / PRICES *SLASHED* !  
ALL GOODS GREATLY *REDUCED* !

(헤드라인, 광고문 공지 등)

d. The mixture *is placed* in a crucible and *is heated* to a temperature of 300°C. It *is then allowed* to cool before it can *be analysed*. (과학적인 글)

(Alexander, 1988)

이는 구어와 문어의 차이라기보다는 과학에 관한 논문이나 저술, 뉴스 등 정보전달을 위한 글과 광고나 희곡, 소설 등의 상상력을 이용한 글 사이의 차이에 있다(Svartvik, 1966). 즉, 수동태는 주어의 의지가 문장의 서술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능동태와 달리 주어가 대체로 생략되면서 객관적인 기술을 함으로써 과학적 저술에 적합한 표현방법인 것이다.

이 외에 수동태가 활용되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a. Oranges *are grown* in California.

(행위자를 쉽게 알 수 있을 때 ; 오렌지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으므로 결국 표면적으로는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을 때)

b. Six people *were killed by* the tornado.

(수동주어나 행위의 결과를 강조하고자 할 때)

c. It is *assumed/believed* that he will announce his candidacy soon.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객관적인 진술을 하기 위해)

d. Margaret *was given* some bad advice about selecting courses.

(행위자를 언급하고 싶지 않을 때; 행위자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재치를 보이거나 행위자를 밝히는 것을 회피하고자 할 때 또는 행위자를 알 수 없거나 알려고 하지 않을 때)

e. George Foreman beat Jae Frazier. But he *was beaten by* Muhammad Ali.

(이어지는 절에서도 같은 주어를 유지하려고 할 때)

f. What a lovely scarf! Thank you. It *was given to* me by Pam.

(행위자가 신정보일 때)

g. The result of this second language learning experiment tend to confirm the hypothesis that students learn in distinctively different ways as *suggested* by Bogen, Pavio, Cohen and Witken. (특히 복문에서 수동태가 능동태보다 더 적절할 때)

cf: (능동태) The results of this second language learning experiment tend to confirm the hypothesis as Bogen, Pavio, Cohen and Witken suggest that students learn in distinctively different ways.

(Celce-Murcia & Larsen-Freeman, 1983)

h. The bank *was robbed* yesterday.

(행위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

(Celce-Murcia & Larsen-Freeman, 1999)

i. After my talk, I *was asked* to explain a point I had made.

(Someone, person과 같은 막연한 단어를 주어로 쓰는 것을 피할 때)

j. This matter will *be dealt* with as soon as possible.

(행동이나 의견, 사실 진술이 불확실할 때)

(Alexander, 1988)

k. The young people returned and *were pardoned* by the baron on the spot. (주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l. Somethings *have been said* here tonight that ought not to *have been spoken*.

(행위자의 'ego'를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Curme, 1931)

한편, 수동태의 형성원인을 문미초점(end-focus)원리와 문미중점(end-weight)원리로 설명할 수도 있다. 문미초점원리란 신정보를 절의 마지막 부분에 뒹으로써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고 문미중점원리란 어떤 절이나 문장에 있어서 보다 복잡하고 긴 부분을 마지막 부분으로 후치시키려는 경향을 말한다. 예문을 살펴보면,

(11) a. Who invented the Korean Alphabet?

b. It *was invented* by King Se-jong.

c. That he was ready to kill me astounded me.

d. I *was astounded* that he was ready to kill me.

b문장에서는 'King Se-jong invented it.'이란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꿈으로써 'King Se-jong' 이란 행위자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문미초점원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c문장에서 주어 부분이 너무

길어 문두에 나오는 것이 어색한 경우에는 d문장에서와 같이 긴 주어를 후치시킴으로써 문미중점원리에 의해 수동태가 선택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 (Quirk et al, 1972).

### 2.2.3. 'by 행위자'의 생략과 명시

수동태에서 'by 행위자'가 나타나는 형태는 15~20% 정도로써(Celce-Murcia & Larsen-Freeman, 1999) 문장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제공하는 때에만 'by 행위자'가 제시되는데 행위자가 생략된 형태가 많은 이유로는 행위자를 모르거나 중요하지 않을 경우, 행위자가 이미 언급되어 명백한 경우,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위자인 경우를 들 수 있다. 예문을 살펴보면,

(12) a. He's almost certainly *been murdered*.

(행위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b. I *had been told* that it would be perfectly quiet.

(행위자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을 때)

c. She found that she *wasn't being paid* the same wage as him. (행위자를 명백히 알 수 있을 때)

d. The government responded quickly, and new measures *were passed* which strengthened their powers.

(행위자가 이미 언급되었을 때)

e. It is very strange and *has never been adequately explained*.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위자인 때)

f. The original *has been destroyed*.

(행위자의 정체를 감추고 싶을 때)

(Bullon et al, 1990)

g. The subject *was blindfolded* and a pencil *was placed* in the left hand.

(과학이나 기술관련 글에서 주어 ‘I’ 나 ‘we’ 의 반복을 피하고 실험절차를 강조하기 위하여, 또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글의 객관성 유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Greenbaum & Quirk, 1990)

한편, ‘by 행위자’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13) a. While Jill was walking down the street, her purse *was snatched by a young man*. (agent가 새로운 정보일 때)

b. All the lights and appliances in the Albertson household *are switched on and off daily by this electrical device*.  
(agent가 무생물 명사인 경우)

c. The Mona Lisa *was painted by da Vinci*.  
(agent가 잘 알려진 사람일 때)

(Shintani, 1979)

행위자를 표시할 때는 다음 예문에서와 같이 ‘by’ 이외에 ‘of, with, in, at, about’ 등의 전치사가 쓰이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14) a. She *was beloved of* all.

b. She will *be hated of* all men.

(‘of’ 는 심리상태를 표시하는 수동태에 많이 사용된다.)

c. I *was satisfied with* the term.

d. She *was troubled with* his hard question.

(‘with’는 주로 도구, 수단을 표시하기 위해 쓰이며 만족, 불만, 곤란을 나타낸다.)

e. I *am interested in* English.

f. He *was disappointed in* her.

(‘in’은 주로 관심의 대상을 수반하며 흥미, 실망을 나타낸다.)

g. We *were surprised at* the sad news.

h. I *am rejoiced at* his success.

(‘at’은 주로 감정의 대상을 수반하며 희비, 경악, 분노를 나타낸다.)

i. He *is always worried about* the test.

j. I *am not concerned about* it.

(‘about’은 주로 감정의 대상을 수반하며 걱정, 흥분을 나타낸다.)

(홍서영, 2002)

이렇듯 관심, 놀람, 실망, 기쁨 등 여러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쓰이는 수동태를 의사수동태라 하며 영어로는 pseudo-passive 또는 quasi-passive 라고 하는데(문용, 2014) semi-passive란 명칭으로 불리우기도 한다(Quirk et al, 1985).

#### 2.2.4. 상태수동태와 동작수동태

영어의 수동태는 ‘be p.p’가 사용되었는지 ‘get p.p’가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상태수동태와 동작수동태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 예문에서 ‘was shot’은 총에 맞은 상태를, ‘got shot’은 총에 맞는 동작을 의미한다(Roberts, 1954).

- (15) a. The police say the man *was shot* when they found him, but they don't know when he *got shot*.

Be수동태가 동사의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반면, get수동태는 동사의 상태가 아닌 동작을 강조할 때 쓰이며 be수동태가 객관적인 사실을 나타낸다면 get수동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화자의 감정을 나타낸다. 즉, get수동태는 화자의 주관적 가치판단이 개입될 때나 주어가 타인의 영향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결심에 따라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사용된다. 또한 결과가 주어에게 이롭지 못한 것일 때에는 주어가 그 일을 유도했거나 최소한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을 나타낸다.

동작수동을 나타내는 get수동태는 능동주어인 행위자보다는 수동주어에 강조를 두기 때문에 ‘by 행위자’가 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Carter와 McCarthy(1997)의 연구에 의하면 139개의 get수동태 중에서 130개가 행위자 없이 사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16) a. The boy *got hurt* on his way home from work.  
b. \* The boy *got given* a violin by his father.

a문장에서 ‘The boy’를 다치게 한 행위자가 누구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행위자가 드러나는 경우라 할지라도 b문장에서처럼 생물 행위자는 취하지 않는다(Quirk et al, 1972).

Get수동태는 현재완료진행형 또는 미래완료진행형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서 be수동태와 다른데 동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표시하는 데에는 get수동태가 쓰이며 아래 예문에서 c문장과 d문장은 비문이 된다.

- (17) a. Scott *has been getting whipped*.  
b. Scott will *be getting whipped*.  
c. \* Scott will *be being whipped*.  
d. \* Scott *has been being whipped*.

(Roberts, 1954)

한편, be수동태가 동작수동태와 상태수동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get수동태는 상태보다는 동작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쓰이며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 (18) a. His bills *are paid*.  
b. The door *was shut* at six when I went by.  
c. I don't know when the door *was shut*.  
d. The gate *was closed* at ten.  
e. The gate *got closed* at ten.

a문장에서 'are'에 중점을 둔다면 동작이 강조되는 동작수동태가, 과거분사인 'paid'에 중점을 둔다면 상태가 강조되는 상태수동태가 될 것이고 만약 'His bills get paid.'라고 한다면 동작의 의미가 한층 강화되어 의심의 여지 없이 동작수동태가 될 것이다. 반면, b문장의 'was shut'은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c문장의 'was shut'은 동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Crume, 1931). 또한 d문장은 '누군가 10시에 정문을 닫았다' 또는 '정문이

10시에 열려있지 않았다’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e문장은 ‘누군가 10시에 정문을 닫았다’라는 의미만이 가능하다(Stageberg, 1977).

한편, get수동태는 주어가 사건에 의해서 불리하게 영향을 받는 경우를 함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쓰이며 자세한 사전계획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기술할 때에는 be수동태가 쓰인다.

- (19) a. She *got arrested* by the Feds last night.  
b. Yesterday Cyril's house *got broken* into by some drunks.  
c. Our new school building *was built* last year.  
d. \* Our new school building *got built* last year.

a문장에서는 주어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안 좋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b문장에서는 술 취한 사람에 의해 집이 침입당하는 불행한 상황을 경험할 때 get수동태가 사용되었다(Roderick, 1993). c문장은 학교 신축공사가 작년에 마무리되었다는 뜻으로 이는 자세한 사전계획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므로 get수동태 대신 be수동태를 사용하고 있다(문용, 2014).

말하기나 쓰기에 있어서 be수동태가 get수동태보다는 좀 더 격식성이 있는 표현이며(Kuiper & Allan, 1996) 문어체의 특징을 지닌 2종 영어교과서와 구어체의 성격을 띠는 「Night Mother」라는 현대희곡을 비교해 보면, get수동태가 문어체(0.4%)보다는 구어체(21.4%)에서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듯이(현윤정, 2001) be수동태는 격식을 갖춘 중립적인 표현이고 get수동태는 구어적이고(colloquial) 감정적인 표현을 전달하며 상태가 아닌 행동과 과정을 기술한다.

- (20) a. He *was hurt* by the rock.

b. He *got hurt* while playing.

a문장은 사고로 다쳤다는 상태표현으로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지만 b문장은 놀고 있는 중에 다쳤다는 사실 이외에 주어인 'He'가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지만 부주의하여 사고를 당했다는 의미도 나타낸다(Celce-Murcia & Larsen-Freeman, 1983).

같은 맥락에서, be수동태가 과거분사가 나타내는 행위에 대해 수동적으로 당하는 입장이라면 get수동태는 주어의 적극적인 개입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주어에게 이로운 것(beneficial)과 이롭지 못한 것(adversative)이 있을 수 있다.

(21) a. Jane *was fired*.

b. Jane *got fired*.

c. Jane *got herself fired*.

d. Jane *got promoted*.

e. Jane *got herself promoted*.

a문장에서 주어인 'Jane'이 해고당한 것을 화자의 감정개입이 없이 중립적인 의미로 전달하고 있다면 b문장은 'Jane'이 해고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주의하지 않은 탓에 해고당했다는 뜻이고 c문장은 'Jane'이 스스로 원해서 해고되었거나 어떤 결정적인 잘못으로 인해 해고당했다는 의미이다. 한편, d문장은 'Jane'이 승진하기 위해 상황을 유도한 결과 승진할 수 있었다는 뜻이고 e문장은 'Jane'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승진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Chappell, 1980).

다음 예문은 get수동태가 화자의 부정적인 심리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말해준다.

- (22) a. How *was* this door *opened*?  
 b. How did this door *get opened*?

a문장에서는 화자가 이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 단지 그 문을 연 방법을 묻고 있다면 b문장에서 화자는 어떻게 이 문이 열렸는지 문이 열려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스러운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정희자, 1998).

이와 같이 be수동태는 의미적으로 중립성(neutral)을 갖는 반면, get수동태는 주로 구어체에서 화자의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며 영어의 구어체를 조사한 결과, 총 139개의 문장 중에서 124개의 문장이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다(Carter & McCarthy, 1997).

영어 수동태의 수동조동사(passive auxiliary)로써 ‘be, get’이외에도 ‘become’을 볼 수 있으며 또한 매우 드물게 나타나긴 하지만 ‘stand, grow, rest, sit’ 이 사용되기도 하는데(Jespersen, 1954)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3) a. I *got arrested* for speeding.  
 b. She *became more and more affected* by him.  
 c. He *stands accused* of murder.  
 d. He *grew tired*.  
 e. You may *rest assured* of my help.  
 f. He *sat surrounded* by strange people.

#### 2.2.5. 서술형용사와 수동태의 구분

Be동사 뒤에 과거분사가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수동태라고 할 수는 없으

며 수동태는 형태(form) 뿐 아닌 문맥(context)상의 문제로도 파악해야 한다.

(24) a. The man *was lost* in the woods.

위 문장에서 동사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The man’이 숲에서 길을 잃은 상황을 강조할 때는 ‘lost’가 서술형용사(predicate adjective)로 쓰인 것이지만, 길을 잃도록 유도한 사람이나 사물 등 선행사건을 강조하여 그로 인해 길을 잃었다는 의미가 되면 수동태가 되므로 문장의 형태 뿐 아니라 문맥 또한 파악해야 한다(Fries, 1940).

한편, 수동태의 문장에서 과거분사의 형태가 과연 형용사의 의미로 사용되는지 수동태의 의미로 사용되는지 항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25) a. The windows *were broken*.

b. The house was a mess. The paintwork was peeling and the windows *were broken*.

c. The windows *were broken* by the force of the explosion.

a문장에서 ‘broken’은 형용사와 수동태 둘 다로 기능할 수 있다. 하지만 b문장의 경우 ‘broken’은 형용사로 사용된 경우이고 c문장은 수동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형용사의 의미인지 수동태의 의미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 b문장의 ‘broken’은 묘사적이고(descriptive) 진술적(stative)으로 사용되었기에 형용사적이며 c문장의 경우에는 역동적(dynamic)이기 때문에 수동태라고 말할 수 있다(Willis, 1996).

문장단계에서 형용사의 의미로 사용된 과거분사인지 수동태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by 행위자'가 문장에 드러났는지 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겠지만 그 이외에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서술형용사로 쓰인 경우의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6) a. They *were very interested* in your plans.

(very, quite, so, most에 의해 수식이 가능할 때)

b. \* They *were very interested* in your plans by me.

('by 행위자'가 첨가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을 때)

c. I *was quite mistaken*.

(\* Somebody/something quite mistook me.)

(해당문장이 능동문장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할 경우)

d. I *become worried and angry*.

(다른 형용사와 연결될 때)

e. The streets *were deserted*.

(과거분사형태가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표현하지 않고 주어의 상태를 의미할 때)

f. The shop *was already closed* when I got there.

(already와 같이 사용되었을 때)

(Jan A. van Ek & Nico J. Robot, 1984)

#### 2.2.6. 중간태

중간태(middle voice)는 동사가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로써, 수동태 형태가 아닌 능동태의 형태를 띠면서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27) a. These cards *sell* well.

b. That print will *show* to good advantage with that kind of lighting.

위 문장에서처럼 ‘sell’과 ‘show’는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들로서 능동태 문장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수동의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듯 능동태의 형태를 취하면서 수동태에서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중간태’라고 부른다.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 문장을 보다 쉽게 비교하기 위한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8) a. Her high C *shattered* the glass.(능동태)

b. The glass *was shattered* by her high C.(수동태)

c. The glass *shattered*.(중간태)

(Celce-Murcia & Larsen-Freeman, 1999)

중간태와 수동태의 공통점은 둘 다 비행위자(nonagentive)를 문장의 주어로 취한다는 것이지만 의미적 차이점은 중간태 문장에선 논리적인 주어가 없다는 것이다.

(29) a. Ovid’s poem *was read* at the ceremony.(수동태)

b. Ovid’s poetry *reads* smoothly.(중간태)

수동태인 a문장에서는 비록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더라도 논리적인 주어인 행위자(agent)를 가지고 있으며 누군가 ‘Ovid’의 시를 읽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중간태인 b문장에서는 누군가가 ‘Ovid’의 시를 읽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 읽음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할 뿐이다(Jeffrey, 1995).

중간태 문장이 주로 사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30) a. The bank *closes* at 5 p.m.

(초점이 상태의 전환에 있고 행위자는 관련이 없을 때)

b. We were sitting quietly after dinner, when suddenly the door *opened*. (작가나 화자의 의도가 불가사의하거나 공포스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자 할 때 즉, 행위자의 개입이 없이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c. Left hanging on the fence, the red balloon suddenly *burst*. (행위자의 개입 없이도 주어가 불안정하고 깨질 수 있는 것일 때)

d. The ice on the pond *melted* earlier than usual.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할 때)

e. Prices *increased* due to a variety of factors.

(상태변화를 가능케 하는 원인이 너무 많아서 특정한 행위자를 암시하는 것이 잘못일 수 있을 때)

(Celce-Murcia & Larsen-Freeman, 1999)

이 외에도 ‘resemble, have, fit, cost, weight, equal’ 등의 동사를 자동사와 타동사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중간태 동사로 분류할 수 있는데 (Roderick, 1993) 다른 말로 능수동(active-passive)동사라 쓰이기도 하며(조성식, 1974) 개념적 수동태(notional passive)라 불리우기도 한다(Roberts, 1954). 타동사로도 사용되면서 자동사로도 사용되는 중간태의 경우 학습자

들이 이를 비문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교과서와 교실학습상황에서 이러한 중간태 문장을 제시할 때에는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 2.2.7. 사역수동태와 경험수동태

사역수동태란 ‘have/get 목적어 p.p’ 형태로써 문장의 주어가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을 나타내며 과거분사는 목적어의 서술어으로써 수동의 뜻을 나타낸다(Curme, 1935).

Nishimoto(1971)는 다음의 예문과 같이 사역수동태의 조동사로 ‘have, get’과 함께 ‘make’의 사용 또한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조동사로 인해 사역의 의미가 분석적으로 표현되며 수동의 의미를 표현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 (31) a. I could not *make* myself *understood*.  
b. I *had* my shoes *mended*.  
c. He *got* a new suit *made*.

한편, ‘have’는 사역수동태에 사용되는 ‘have’(causative have)와 경험의 ‘have’(experiential have)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험수동태는 사고, 재난 등 주어의 통제권 밖의 일이 발생했을 때 주로 쓰인다.

- (32) a. Mary *had* her purse *snatched*.

위 문장의 have는 ‘경험의 have’와 ‘사역의 have’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경험의 ‘have’로 해석할 경우, ‘Mary’가 지갑을 날치기 당했으며

이는 그녀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사역의 'have'로 해석할 경우는 'Mary'가 아마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그녀의 지갑을 날치기하도록 사주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Celce-Murcia & Larsen-Freeman, 1999).

이 외의 수동태로는 다음 예문을 들 수 있는데,

- (33) a. His house *is building* now.(=*is being built*)
- b. He *is to blame*.(=*to be blamed*)
- c. The problem requires *considering*.(=*to be considered*)
- d. I could smell *frying bacon* and *baking bread*.(=*bacon which was being fried* and *bread which was being baked*)
- e. The place is worth *visiting*.(=*being visited*)

a문장은 진행이 수동의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이고 b문장은 능동형 부정사가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이며 c문장은 능동형 동명사가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이다(노세익, 2007). 또한 d문장은 현재분사가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이고 e문장은 형용사 'worth' 다음의 동명사가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이다(박지하, 1971).

### 2.3. 선행연구

수동태는 능동태보다 사용빈도가 훨씬 적고 능동·수동태 전환 시 여러 가지 제약을 고려해야 하는 까다로운 개념으로써, 문법학습 중에 수동태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으나(임나운, 2006) 이는 자연스러운 영어구사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으로 수동태가 사용되는 다양한 맥락을 학습자에게 제시하여 화용론적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현윤정, 2001).

현재까지의 수동태 교육관련 연구로는 주로 중고등학교 교과서 분석에 의한 수동태의 비율, 유형, 사용양상, get수동태의 특성, 학습자의 수동태 습득에 대한 분석, 코퍼스에서 수동태 동사의 빈도수를 추출하여 교과서와 대조·분석하는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 교과서의 수동태 비율과 사용양상에 관한 연구에서,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수동태 문장은 9.6%로, 사실목적 전달의 글에서 주로 수동태가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이미현, 2013).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수동태 문장은 15.9%로써 논설문, 설명문, 소설, 감상문 등 다양한 장르에서 수동태 문장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음악, 예술, 문명 등의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단원에서는 대부분 높은 비율의 수동태를 보여주고 있었고 창의성과 조연의 성격을 띤 글에서는 낮은 비율의 수동태가 쓰이고 있었다(김원영, 2004).

국내 영어교과서 분석 이외에 수동태의 비율과 사용양상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미국 초등학교 reading교재 분석결과, 수동태 문장이 쓰인 비율은 Article(25.2%), Lesson(18.8%), Fiction(9.1%), Drama(8.9%) 순으로 나타났으며(이한창, 2003) 영어 소설:한국어 소설의 수동태 비율은 6:1로 원어민들이 상대적으로 수동태를 훨씬 자주 사용하고 있었고(김상옥, 1996) 미국에서

근무하는 37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7가지 직종에서 태가 사용되는 빈도를 조사한 결과, 경영을 제외한 나머지 직종 즉, 일반사무, 공공관련, 교육, 보험, 서비스, 기금모집 부문에서 능동태보다 수동태가 더 선호되었다. 특히 그 연구에서는 문형별로 두 개의 절(phrase)이 모두 수동태인 복문(70%)이 모두 능동태인 복문(30%)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 미국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의 수동태 사용빈도 역시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Watson, 1993).

한편, 코퍼스를 이용한 수동태 연구를 살펴보면, 브라운 코퍼스 분석결과, 구어체에서보다 문어체에서 수동태 문장이 더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글의 장르에 따라 문장사용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정보문서관련 글(24.15%), 학문적인 글(21.95%), 기술과 취미에 관한 글(14.25%)에서 높은 수동태 비율을 보인 반면, 유머가 있는 글(6.87%), 과학소설(6.6%), 일반소설(4.79%), 모험과 서양소설(3.59%)에서의 수동태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박미나, 2008). 소설 등의 글에서는 화자의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므로 행위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수동태보다는 능동태 문장이 쓰이게 되는 반면, 학문관련 글에서는 추상적이면서 객관적인 글의 주제로 인해 특별히 행위자를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자주 쓰이게 된다. 또한 BNC, 한양대학교 신입생 영작문, 중고등학교 영어교과서 33권 등, 세 가지의 코퍼스를 사용하여 수동태 문장을 분석한 결과, 수동태 전체 빈도수는 BNC와 영어교과서에서 각각 7.8%와 9.4%로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영작문에서는 1.6%로 그 사용빈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으며 원어민 코퍼스에 나타난 고빈도 수동태 동사들이 교과서나 영작문에서는 매우 낮은 빈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 교과서에 다양한 예문을 제시하고 실제적인 용례를 담고 있는 원어민 코퍼스를 활용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곽혜선, 2006). 다만, 코퍼스를 활용한 실용적 교육이 직관에 기반을 둔 규

범주의적 측면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며 두 영역의 조화로운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이광재, 2013).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쓰인 수동태 문장의 주어의 특성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명사절이나 복합 명사구보다는 간단한 명사구(97.5%)의 사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영어에서 긴 내용은 문미로 보내는 문미중점 원리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영주, 2006). 수동주어로 쓰이는 명사구는 3인칭 > 1인칭 > 2인칭의 순으로 3인칭이 96.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3인칭 수동주어의 76.9%는 ‘non-human’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89%의 수동태 문장에서 행위자를 생략하고 있었는데, 행위자가 표시된 경우에는 그 중 비한정명사구가 64.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무생물 주어(25%), 고유명사(10.7%)의 순이었다(현윤정, 2001). 수동조동사의 쓰임에 있어서는 구어체와 문어체 전체에서 be동사가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는데, 구어체에서는 88.9%, 문어체에서는 92.7%의 비율로 사용되고 있었고,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동조동사는 ‘get’으로 나타났는데, 구어체에서는 9%로, 문어체의 4.5%보다 두 배 정도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박미나, 2008).

구어체와 격식을 갖추지 않은 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get수동태의 형성요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원어민들이 get수동태를 사용할 때 자연스럽게 인지되는 주어와 동사에 대해 분석한 결과, get수동태 형성조건에 가장 잘 맞는 주어는 사람(human), 동물(non-human), 다음은 사람과 관련성 있는 무생물체(human-related, ex)car, building, painting)가 자연물(natural, ex)river, mountain, rock)보다 높게 나타났고, 동사의 경우 다른 동사들에 비해서 성취동사의 사용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는데 성취동사는 get동사가 가지고 있는 장소의 이동이나 상태의 변화의 특성과 잘 어울려 get수동태의 형성조건과 잘 맞는 동사임을 알 수 있었다(이재형, 2003).

고대영어에서는 상태를 나타내는 ‘wesan’과 동작을 나타내는 ‘weorðan’이 각각 쓰였는데, 동작을 나타내던 ‘weorðan’이 점차 사라져버리고 ‘wesan’이 남아 상태와 동작을 나타내는 수동태에 같이 사용되었다. 그러다 보니 상태인지 동작인지 구별이 애매하여 중의성을 가지게 되었고 비교적 격식을 덜 갖추는 구어체에서 동작을 특별히 나타내고자 ‘get’이 쓰이면서 고대영어의 ‘weorðan’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Be수동태가 비교적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반해 get수동태는 주어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암시하며 특히 채귀대명사를 목적어로 사용했을 때 화자의 부정적인 감정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조석중, 1992).

수동태의 습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외국생활의 경험이 없는 대학교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동태 문장의 시제의 습득에 관한 연구를 한 결과, 현재> 과거> 미래> 현재완료> 과거완료> 미래완료> 과거진행> 현재진행형의 순으로 단순시제에 대한 정답율이 제일 높았으며(김정인, 2002)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전환 시에 발생하는 시제 오류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현재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전환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현재형 ‘is, are’가 아닌 과거형 ‘was, were’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다’ 보다는 ‘했다’, ‘잡는다’ 보다는 ‘잡혔다’ 라고 우리말로 먼저 인지한 후 이렇게 미리 생각한 한국어 문장을 다시 영어로 바꾸기 때문에 일반적 사실을 나타내는 ‘is, are’보다는 일회성 의미를 가진 ‘was, were’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이정돈, 2011).

또 다른 실험에서 수동태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과 오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참가자들의 66.3%가 수동태는 단지 ‘be p.p’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24.7%의 학생들은 수동태로 전환 가능한 문장형식을 묻는 질문에 오답을 기재함으로써 수동태 전환에 대한 혼동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전정희, 2002).

학습자들의 수동태 습득양상을 의미와 형태, 활용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수동태의 의미영역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이 활용영역, 형태영역의 순으로, 이는 한국어에도 수동태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수동태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지만 한국어에 없는 시제나 형태, 수동태가 쓰이는 맥락을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현한나, 2008).

임진희(2004)의 설문연구결과는 수동태 학습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110명의 고등학생 중 수동태 문장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정확한 개념파악이 힘들다고 답한 학생들이 많았으며 수동태를 언제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한 학생들도 응답자의 절반이 넘었다고 한다.

이는 교과서마다 수동태의 의미와 쓰임에 대한 설명은 없고 대부분 수동태가 능동태와 완전히 같은 의미를 지닌 통사적 변화로써 언제나 상호변환이 가능한 것처럼 제시하고 있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으며(유양위, 2007) 한국 중고등학교에서 영어수동태를 가르칠 때 능·수동문장의 상호 전환에 중점을 두는 까닭에 학생들은 능동태와 수동태 문장을 그 기능에 맞도록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수동태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억지 한국어 번역은 학생들의 모국어 사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김성중, 2000). 따라서 영어교과서에 진정성 있는 언어자료를 수록하고 학생들이 학습하기에 적합한 자료들을 제시하는 것은 교과서 구성의 숙제이며 교과서 연구를 통한 한계점 지적과 대안의 제시는 주요한 연구분야가 되어야 할 것이다(권혜원, 2008). 또한 의사소통능력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언어 학습을 위해서는 원어민의 실질적인 언어사용용례를 담고 있는 코퍼스를 활용하여 이를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영어교과서와 미국 영어교재, 소설, 코퍼스, 학습자 오류분석을 통한 수동태 관련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아직까지 원어민

코퍼스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우리말에서는 수동태로 거의 쓰이지 않는 4형식 수동태 동사의 비율 및 장르와 시제에 따른 쓰임을 동시에 분석한 연구는 아마도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원어민 코퍼스를 분석도구로 하여 4형식 동사인 give, tell, teach동사를 중심으로 능동·수동태 비율, 능동·수동태별 장르 및 시제에 따른 빈도수, be수동태와 get수동태의 빈도수, 미래시제 중 'will be p.p'와 going to be p.p'의 빈도수를 비교분석해 보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I, II 영어교과서 5종 총 10권을 선정하여 4형식 동사인 give, tell, teach동사의 수동태가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교과서에 제시된 단원별 수동태 비율 및 전체문장 중 수동태 비율, 구어체·문어체별 수동태 비율, be수동태와 get수동태를 비롯한 수동조동사의 빈도수, 수동태의 시제별 빈도수에 대하여 비교분석한 후, 이를 교수학습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 Ⅲ. 연구분석

#### 3.1. 연구분석대상 및 방법

국어에서는 보조동사 ‘~(아/어)지다’ 형이 영어의 수동태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에게 가르쳐지다’, ‘~에게 말하여지다’, ‘~에게 (무엇인가) 주어지다’의 수동태 문장은 거의 쓰이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원어민들 간의 대화나 영어회화책, 미국드라마에서는 ‘be given’, ‘be told’, ‘be taught’와 같은 4형식 동사의 수동태 문장이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영어에서는 위 세 동사의 수동태가 타동사에 적용되는 생산적인 규칙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 의문점을 해소하고자 대용량의 원어민 코퍼스인 BNC, COCA, COHA를 이용하여 give, tell, teach 동사의 능동·수동태 비율 및 능동·수동태별 시제에 따른 빈도수를 비교하고 BNC, COCA에서 능동·수동태별 장르에 따른 빈도수를 비교분석해 보았다. BNC에서는 Spoken, Fiction, Magazine, News, Non-academic, Academic, Miscellaneous 장르에 따른 빈도수를 살펴보고 COCA에서는 Spoken, Fiction, Magazine, Newspaper, Academic 장르에 따른 빈도수를 알아보았다.

시제별 빈도수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give, tell, teach 세 동사의 능동·수동태의 시제를 현재, 과거, 미래, 진행형, 현재완료, 과거완료의 6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Give동사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능동태의 현재시제는 ‘give’, 과거시제는 ‘gave’, 진행형은 ‘giving’, 현재완료시제는 ‘has given’, ‘have given’의 빈도수를 합하여 산출하였고, 과거완료시제는 ‘had given’의 빈도수를 구하였다. 현재시제인 ‘give’에는 3인칭 단수현재 ‘gives’를 포함하여 산출하였고 여기에는 조동사와 결합한 형태인 ‘may give’, ‘would give’,

‘could give’, ‘might give’, ‘should give’ 등도 포함된다고 간주하였다. 미래시제는 ‘will give’, ‘going to give’의 빈도수를 합하여 산출하였고 현재시제 ‘give’의 빈도수에서 ‘will give’와 ‘going to give’의 빈도수는 제외하였다.

수동태의 현재시제는 ‘am, is, are, get, be given’의 다섯 가지 빈도수를 합하여 산출하였고 ‘be given’에는 ‘may be given’, ‘would be given’, ‘could be given’, ‘might be given’, ‘should be given’ 등도 포함된다고 간주하였다. 미래시제는 ‘will be given’과 ‘going to be given’의 빈도수를 합하여 산출하였고 현재시제 ‘be given’의 빈도수에서 ‘will be given’ 과 ‘going to be given’의 빈도수는 제외하였다.

수동태의 과거시제는 ‘was given’, ‘were given’, ‘got given’을 합한 숫자로 구하였고 현재완료 수동태인 ‘has/have been given’의 경우, ‘been given’의 빈도수를 검색하여 이 숫자에서 과거완료 수동태인 ‘had been given’의 빈도수를 빼서 산출하였다. 단, tell, teach동사의 경우 과거와 완료의 마지막 형태가 ‘told, taught’로 동일하므로 과거형인 ‘told’의 빈도수는 전체 ‘told’의 빈도수-(‘has/have/had told’, ‘am/is/are/be/get told’, ‘was/were/got told’, ‘being told’, ‘has/have been told’, ‘had been told’)로 구하였고 이는 ‘taught’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give, tell, teach동사의 수동태에서 get수동태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과거시제의 빈도수를 ‘be p.p’와 ‘get p.p’로 나누어 살펴보고, 미래시제에 ‘will be p.p’와 ‘going to be p.p’ 중 어느 것이 더 많이 쓰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별도로 비교분석해 보았다.

아울러 고등학교 I, II 영어교과서 5종 총 10권을 선정하여 4형식 동사인 give, tell, teach동사의 수동태가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세 동사의 수동태 비율 및 교과서에 쓰인 수동태 문장은 원어민 코퍼스에 나타난 것과 같이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어체(인터뷰, 대화, 토론)와 문어체(Fiction, 편지글, 설명문, 뉴스, 과학, Lesson, 조

언의 성격이 강한 글)로 분류하여 그 비율을 비교분석하고, 수동태 문장에  
서의 시제를 ‘현재, 과거, 미래, 진행형, 현재완료, 과거완료’로 분류하여 빈  
도수를 살펴보았다.

또한 교과서에 나타난 전체 수동태 동사를 대상으로 하여, 단원별 수동태  
비율 및 전체 문장수 대비 수동태 비율을 분석해보았다. 지시문과 listening  
대본도 문장수에 포함하였고 문장들이 ‘and, but, or’ 등의 등위접속사로 연  
결된 경우에는 각각 하나의 문장으로 간주하였으며 ‘that, which’ 등의 관계  
대명사나 ‘when, because, if, although, so that’ 등의 부사절로 연결되어 있  
는 경우는 한 문장으로, 동일한 문장이 본문과 연습문제에서 반복되는 경우  
두 문장으로, 부사절과 연결된 복문에서 주절, 종속절에 동시에 수동태가 나  
타나는 경우에는 두 문장으로 간주하였다. ‘be interested in’, ‘be satisfied  
with’ 등의 의사수동태는 포함하였고 ‘feel p.p’나 ‘remain p.p’, ‘look p.p’,  
‘seem p.p’ 와 같이 형용사적 성격이 강한 수동태는 제외하였으며 ‘get p.p’,  
‘become p.p’, ‘grow p.p’, 사역수동태, 분사, 분사구문은 포함하였다.  
‘can/could/would/should/might/be p.p’ 등은 현재에 포함하였고 분사구문이  
나 ‘to be p.p’의 경우는 문맥에 따라 시제를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수동조동사인 be수동태와 get수동태, become수동태, grow수동  
태, 사역수동태의 빈도수를 살펴보고, 구어체(인터뷰, 대화, 토론), 문어체  
(Fiction, 편지글, 설명문, 뉴스, 과학, Lesson, 조언의 성격이 강한 글)별 총  
문장수 대비 수동태 문장수의 비율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수동태 문장의 시제  
를 ‘현재, 과거, 미래, 진행형, 현재완료, 과거완료’로 분류하여 빈도수를 살  
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분석한 고등학교 교과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1> High School English I, II (5종 총 10권)

출판사	교재명	저자	기호
천재	High School English I	김진완 외 10인	C
	High School English II	김진완 외 10인	C
두산	High School English I	윤민우 외 6인	D
	High School English II	윤민우 외 6인	D
능률	High School English I	이찬승 외 5인	N
	High School English II	이찬승 외 5인	N
금성	High School English I	김경한 외 11인	K
	High School English II	김경한 외 11인	K
YBM	High School English I	신정현 외 12인	Y
	High School English II	신정현 외 12인	Y

### 3.2. 코퍼스 분석

국내 코퍼스 연구주제로는 어휘, 문법, 담화, 교육 등이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어휘연구로 이는 최근 10년간 국내 및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중 63%에 해당한다(이은주, 2008). McCarthy(2005)는 학습자들이 문법을 잘 배우고 목표어의 발음을 습득한다 하여도 넓은 범위의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 없이는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하였다. 어휘 가운데에서도 동사는 문장의 의미와 구조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많은 연구들에서 언어학습자들이 어휘를 학습할 때 기본적으로 빈도가 높은 동사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빈도 동사의 쓰임 중 수동태의 사용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4형식 동사 중 give, tell, teach 동사를 중심으로 코퍼스에 나타난 능동·수동태 비율, 능동·수동태별 장르 및 시제에 따른 빈도수, be 수동태와 get 수동태의 빈도수 및 미래시제 중 ‘will be p.p’와 ‘going to be p.p’의 빈도수에 대하여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 3.2.1. 능동, 수동태 동사의 비율

<표 2> BNC, COCA, COHA에 나타난 give, tell, teach동사의 능동·수동태 비율

동사	태	BNC(%)	COCA(%)	COHA(%)
give	능동태	92,569(84.89)	362,690(92.94)	436,963(91.88)
	수동태	16,475(15.11)	27,557(7.06)	38,631(8.12)
	합 계	109,044	390,247	475,594
tell	능동태	66,523(91.11)	428,146(95.31)	431,787(95.08)
	수동태	6,494(8.89)	21,069(4.69)	22,356(4.92)
	합 계	73,017	449,215	454,143
teach	능동태	14,468(91.11)	102,695(92.99)	54,187(88.75)
	수동태	1,412(8.89)	7,743(7.01)	6,871(11.25)
	합 계	15,880	110,438	61,058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BNC, COCA, COHA 모두에서 give, tell, teach동사의 능동태와 수동태 비율의 평균은 각각 91.6%, 8.4%로 능동태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말에서 위 세 동사의 수동태가 거의 쓰이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원어민들은 상대적으로 수동태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좀 더 세부적으로 각각의 동사의 능동·수동태 별로 현재, 과거, 미래, 진행형, 현재완료, 과거완료 등 시제에 따른 빈도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3.2.2. 능동, 수동태 동사의 시제별 빈도수

<표 3> BNC, COCA, COHA에 나타난 능동태 give동사의 시제별 빈도수

태	시 제	BNC (%)	COCA (%)	COHA (%)
능동태	will give going to give	2,336(2.52)	9,731(2.68)	10,864(2.49)
	give/gives	51,283(55.40)	197,655(54.50)	222,152(50.84)
	gave	21,708(23.45)	89,397(24.65)	126,094(28.86)
	giving	12,253(13.24)	48,985(13.51)	45,822(10.49)
	has/have given	2,995(3.24)	10,512(2.90)	17,044(3.90)
	had given	1,994(2.15)	6,410(1.77)	14,987(3.43)
	합 계	92,569	362,690	436,963

<표 4> BNC, COCA, COHA에 나타난 수동태 give동사의 시제별 빈도수

태	시 제	BNC (%)	COCA (%)	COHA (%)
수동태	will be given going to be given	654(3.97)	753(2.73)	1,010(2.61)
	am/is/are/be/get given	7,979(48.43)	10,903(39.57)	17,391(45.02)
	was/were/got given	4,721(28.66)	10,577(38.38)	12,946(33.51)
	being given	654(3.97)	1,014(3.68)	1,034(2.68)
	has/have been given	1,808(10.97)	3,304(11.99)	3,940(10.20)
	had been given	659(4.00)	1,006(3.65)	2,310(5.98)
	합 계	16,475	27,557	38,631

먼저, give동사의 경우 능동태와 수동태 모두에서 현재시제의 빈도수가 전체의 절반 정도의 비율로 현저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능동태 현재시제의 비율이 수동태 현재시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동태에서는 전체적으로 과거시제의 비율이 능동태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시제에 따른 빈도수는 능동태의 경우, 현재> 과거> 진행> 현재완료> 미래> 과거완료의 순인 반면, 수동태의 경우는 현재> 과거> 현재완료> 과거완료> 진행> 미래의 순으로 진행형보다 현재완료와 과거완료의 빈도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진행형의 비율은 능동태에서보다 수동태에서 3배 이상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완료는 3배 정도, 과거완료는 2배 정도 수동태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미래시제는 능동태, 수동태 모두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5> BNC, COCA, COHA에 나타난 능동태 tell동사의 시제별 빈도수

태	시 제	BNC (%)	COCA (%)	COHA (%)
능동태	will tell going to tell	1,199(1.80)	8,997(2.10)	7,981(1.85)
	tell/tells	30,982(46.57)	210,377(49.14)	216,757(50.20)
	told	25,791(38.77)	157,100(36.69)	160,079(37.07)
	telling	5,866(8.82)	40,656(9.50)	29,473(6.83)
	has/have told	1,256(1.89)	5,223(1.22)	8,354(1.93)
	had told	1,429(2.15)	5,793(1.35)	9,143(2.12)
	합 계		66,523	428,146

<표 6> BNC, COCA, COHA에 나타난 수동태 tell동사의 시제별 빈도수

태	시 제	BNC (%)	COCA (%)	COHA (%)
	will be told going to be told	81(1.25)	59(0.28)	153(0.68)
	am/is/are/be/get told	1,669(25.70)	5,666(26.89)	9,222(41.25)
수동태	was/were/got told	2,920(44.96)	9,566(45.40)	7,819(34.97)
	being told	396(6.10)	1,717(8.15)	917(4.10)
	has/have been told	1,081(16.65)	3,283(15.58)	2,756(12.33)
	had been told	347(5.34)	778(3.69)	1,489(6.66)
	합 계	6,494	21,069	22,356

Tell동사 능동태의 경우 현재시제의 빈도수가 전체의 절반 정도의 비율로 제일 높은 반면, 수동태에서는 과거시제의 빈도수가 40% 정도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능동, 수동태 모두에서 진행형의 비율은 6~8% 정도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시제에 따른 빈도수는 능동태의 경우 현재> 과거> 진행> 미래> 과거완료> 현재완료의 순이며 현재완료의 빈도수가 제일 낮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과거완료(1.9%)도 현재완료(1.7%)와 비슷하게 2% 이하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동태에서의 빈도수는 BNC, COCA에서 과거> 현재> 현재완료> 진행> 과거완료> 미래 순이었고 COHA에서는 현재> 과거> 현재완료> 과거완료> 진행> 미래 순으로 많이 쓰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진행형의 비율은 능동태에서보다 수동태에서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완료는 수동태에서 9배 정도, 과거완료는 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미래시제는 능동태, 수동태 모두에서 역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7> BNC, COCA, COHA에 나타난 능동태 teach동사의 시제별 빈도수

태	시 제	BNC (%)	COCA (%)	COHA (%)
능동태	will teach going to teach	98(0.68)	590(0.57)	907(1.67)
	teach/teaches	3,063(21.17)	32,925(32.06)	20,087(37.07)
	taught	1,976(13.66)	16,531(16.10)	12,905(23.82)
	teaching	8,915(61.62)	49,182(47.89)	16,205(29.91)
	has/have taught	190(1.31)	1,988(1.94)	2,039(3.76)
	had taught	226(1.56)	1,479(1.44)	2,044(3.77)
	합 계	14,468	102,695	54,187

<표 8> BNC, COCA, COHA에 나타난 수동태 teach동사의 시제별 빈도수

태	시 제	BNC (%)	COCA (%)	COHA (%)
수동태	will be told going to be told	34(2.41)	98(1.27)	77(1.12)
	am/is/are/be/get taught	789(55.88)	3,991(51.54)	3,418(49.75)
	was/were/got taught	236(16.71)	1,774(22.91)	1,185(17.25)
	being taught	131(9.28)	744(9.61)	272(3.96)
	has/have been taught	158(11.19)	823(10.63)	1,170(17.03)
	had been taught	64(4.53)	313(4.04)	749(10.90)
	합 계	1,412	7,743	6,871

Teach동사 능동태의 경우 BNC와 COCA에서 진행형의 빈도수가 각각 61.62%, 47.89%로 제일 높게 나타나 시제에 따른 빈도수는 진행형> 현재> 과거> 현재완료> 과거완료> 미래 순이었으며 COHA에서는 현재> 진행형> 과거> 과거완료> 현재완료> 미래 순으로, 역시 진행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현재완료, 과거완료는 평균 2% 정도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동태에서는 전반적으로 현재시제가 절반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시제에 따른 빈도수는 능동태에서 진행형이 많이 쓰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재> 과거> 현재완료> 진행> 과거완료> 미래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BNC, COCA에서는 진행형이 과거완료의 2배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COHA에서는 과거완료가 진행형의 3배 정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코퍼스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진행형의 비율은 능동태에서보다 수동태에서 6배 정도 낮게 나타난 반면, 현재완료는 5배, 과거완료는 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역시 미래시제의 쓰임은 능동태, 수동태 모두에서 미미하게 나타났다.

### 3.2.3. 수동태 동사의 현재, 과거, 미래시제에 따른 빈도수

Give, tell, teach동사의 수동태에서 get수동태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과거시제의 빈도수를 'be p.p'와 'get p.p'로 나누어 좀 더 세밀하게 살펴 보았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시제는 'am/is/are p.p'와 'be p.p', 'get p.p'로 분류하였고 'be p.p'의 빈도수에서 미래시제인 'will be p.p'와 'going to be p.p'의 빈도수는 제외하였다. 과거시제는 'was/were p.p'와 'got p.p'로 분류하여 그 빈도수를 비교해 보았고 미래시제인 'will be p.p'와 'going to be p.p'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이 쓰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별도로 비교분석해 보았다.

<표 9> BNC, COCA, COHA에 나타난 give, tell, teach동사의 수동태  
현재시제의 빈도수

태	동사	동사형태	BNC (%)	COCA (%)	COHA (%)
수동태 현재	give	am/is/are given	4,118(51.61)	6,189(56.76)	8,462(48.66)
		be given	3,855(48.31)	4,706(43.16)	8,927(51.33)
		get given	6(0.08)	8(0.07)	2(0.01)
		합계	7,979	10,903	17,391
	tell	am/is/are told	837(50.15)	3,147(55.54)	5,614(60.88)
		be told	799(47.87)	2,482(43.81)	3,598(39.02)
		get told	33(1.98)	37(0.65)	10(0.11)
		합계	1,669	5,666	9,222
	teach	am/is/are taught	349(44.23)	1,901(47.63)	1,408(41.19)
		be taught	435(55.13)	2,078(52.07)	2,008(58.75)
		get taught	5(0.63)	12(0.3)	2(0.06)
		합계	789	3,991	3,418

수동태 현재에서는 ‘am/is/are p.p’와 ‘be p.p’의 빈도수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am/is/are p.p’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Teach동사와 BNC의 give동사에서는 ‘be p.p’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be p.p’에는 ‘would/might/should/could be p.p’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Get p.p’의 빈도수는 평균 0.4%로 매우 미미하며 대체로 1% 이하인데 비해 BNC의 tell동사에서는 ‘get p.p’의 비율이 1.9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COHA의 give동사에서는 0.01%로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BNC, COCA, COHA에 나타난 give, tell, teach동사의 수동태  
과거시제의 빈도수

태	동사	동사형태	BNC (%)	COCA (%)	COHA (%)
수동태 과거	give	was/were given	4,714(99.85)	10,574(99.97)	12,944(99.98)
		got given	7(0.15)	3(0.03)	2(0.02)
		합계	4,721	10,577	12,946
	tell	was/were told	2,892(99.04)	9,550(99.83)	7,812(99.91)
		got told	28(0.96)	16(0.17)	7(0.09)
		합계	2,920	9,566	7,819
	teach	was/were taught	231(97.88)	1,771(99.83)	1,185(100)
		got taught	5(2.12)	3(0.17)	0(0)
		합계	236	1,774	1,185

수동태 과거에서도 ‘was/were p.p.’의 비율이 평균 99.6%로 압도적인 것에 비해 ‘got p.p.’의 빈도수는 수동태 현재에서와 마찬가지로 평균 0.4%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got p.p.’의 빈도수는 1% 이하인데 비해 BNC의 teach동사에서는 ‘got p.p.’의 빈도수가 2.1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COHA의 teach동사에서 ‘got p.p.’가 쓰인 경우는 단 1건도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BNC, COCA, COHA에 나타난 give, tell, teach동사의 수동태 미래시제의 빈도수

태	동사	동사형태	BNC (%)	COCA (%)	COHA (%)
수동태 미래	give	will be given	631(96.48)	677(89.91)	987(97.72)
		going to be given	23(3.52)	76(10.09)	23(2.28)
		합계	654	753	1,010
	tell	will be told	74(91.36)	30(50.85)	144(94.12)
		going to be told	7(8.64)	29(49.15)	9(5.88)
		합계	81	59	153
	teach	will be taught	33(97.06)	87(88.78)	73(94.81)
		going to be taught	1(2.94)	11(11.22)	4(5.19)
		합계	34	98	77

Give, tell, teach동사의 수동태에서 미래시제의 빈도수를 살펴본 결과, ‘will be p.p’가 89.01%로, ‘going to be p.p’의 10.99%에 비해 압도적인 빈도수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외적으로 COCA의 tell동사에서는 ‘going to be p.p’가 49.15%로, ‘will be p.p’의 50.85%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것이 특이한 점이다. COCA에서는 tell동사 이외에도 give, teach동사의 ‘going to be p.p’의 비율이 다른 코퍼스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코퍼스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미래시제의 평균적인 비율은 give동사에서 3.1%, tell동사에서는 0.74%, teach동사에서는 1.6%로 그 쓰임이 미미함을 알 수 있다.

3.2.4. 능동, 수동태 동사의 장르별 빈도수

<표 12> BNC에 나타난 give, tell, teach 동사의 능동·수동태별 장르에 따른 빈도수

동사	태	Spoken (%)	Fiction (%)	Maga zine (%)	News (%)	Non-acad (%)	Acad (%)	Misc (%)
give	능동태	12,695 (94.43)	19,044 (95.64)	6,688 (89.52)	9,536 (81.65)	12,219 (79.56)	12,301 (74.35)	20,075 (81.96)
	수동태	749 (5.57)	869 (4.36)	783 (10.48)	2,143 (18.35)	3,140 (20.44)	4,243 (25.65)	4,419 (18.04)
	합계	13,444	19,913	7,471	11,679	15,359	16,544	24,494
tell	능동태	11,578 (94.73)	28,179 (96.46)	3,029 (89.56)	7,362 (79.68)	5,083 (86.45)	2,559 (81.86)	8,731 (87.73)
	수동태	644 (5.27)	1,035 (3.54)	353 (10.44)	1,877 (20.32)	797 (13.55)	567 (18.14)	1,221 (12.27)
	합계	12,222	29,214	3,382	9,239	5,880	3,126	9,952
teach	능동태	983 (88.88)	1,285 (91.39)	657 (89.51)	872 (91.69)	3,059 (89.55)	3,825 (91.99)	3,800 (92.26)
	수동태	123 (11.12)	121 (8.61)	77 (10.49)	79 (8.31)	357 (10.45)	333 (8.01)	319 (7.74)
	합계	1,106	1,406	734	951	3,416	4,158	4,119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BNC에서는 give, tell 능동태 동사의 경우 Fiction> Spoken> Magazine 순으로, teach 능동태 동사는 Miscellaneous> Academic> News 순으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임으로써 give, tell 두 동사의 장르별 빈도수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teach동사는 다른 성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낮은 빈도수를 보이는 장르는 give동사는 Academic, tell동사는 News, teach동사는 Spoken으로 나타났다. 전체에서 제일 높은 빈도수를 보인 것은 tell동사의 Fiction장르로써 96.46%의 비율을 보였고 제일 낮은 비율을 보인 것은 give동사의 Academic 장르로써 74.35%의 비율로 나타났다. 평균적인 능동태 비율은 teach동사에서 제일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tell, give동사 순이었다.

수동태의 경우를 살펴보면, give 수동태 동사의 경우 Academic> Non-academic> News의 순으로, tell 수동태 동사는 News> Academic> Non-academic 순으로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teach 수동태 동사의 경우 Spoken> Magazine> Non-academic 순으로 나타나 능동태와 마찬가지로 give, tell 두 동사의 장르별 수동태 빈도수 양상은 비슷한 반면, teach동사는 다른 성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낮은 빈도수를 보이는 장르는 give, tell동사는 Fiction, teach동사는 Miscellaneous로 나타났다. 전체에서 제일 높은 빈도수를 보인 것은 give동사의 Academic 장르로써 25.65%의 비율을 보였고 제일 낮은 비율을 보인 것은 tell동사의 Fiction 장르로써 3.54%의 비율로 나타났다. 평균적인 수동태 비율은 give동사에서 제일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tell, teach동사 순이었다.

<표 13> COCA에 나타난 give, tell, teach동사의 능동·수동태별 장르에 따른 빈도수

동사	태	Spoken (%)	Fiction (%)	Magazine (%)	News paper (%)	Academic (%)
give	능동태	90,311 (94.84)	91,215 (96.99)	72,625 (93.84)	66,122 (93.28)	42,417 (81.12)
	수동태	4,912 (5.16)	2,835 (3.01)	4,771 (6.16)	4,765 (6.72)	9,874 (18.88)
	합계	95,223	94,050	77,396	70,887	52,291
tell	능동태	125,597 (94.81)	151,340 (97.70)	66,620 (94.93)	61,881 (93.70)	22,708 (88.64)
	수동태	6,878 (5.19)	3,560 (2.30)	3,556 (5.07)	4,164 (6.30)	2,911 (11.36)
	합계	132,475	154,900	70,176	66,045	25,619
teach	능동태	10,256 (91.27)	11,937 (94.68)	17,420 (93.27)	15,284 (93.88)	47,789 (92.55)
	수동태	981 (8.73)	671 (5.32)	1,256 (6.73)	996 (6.12)	3,848 (7.45)
	합계	11,237	12,608	18,676	16,280	51,637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CA에서는 각각 give, tell, teach 능동태 동사 모두 Fiction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give동사의 경우 Spoken> Magazine> Newspaper> Academic 순이었고 tell동사의 경우 Magazine> Spoken> Newspaper> Academic 순으로 나타났으며 teach동사의 경우 Newspaper> Magazine> Academic> Spoken 순으로 나타나 그 사용양상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낮은 빈도수를 보이는 장르별 각각 give, tell동사는 Academic이었고, teach동사는 Spoken으로 나타났으며 능동태의 장르별로 제일 높은 빈도수를 보인 것은 tell동사의 Fiction

장르로서 97.7%의 비율을 보였다. 제일 낮은 비율을 보인 것은 give동사의 Academic장르로써 81.12%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인 능동태 비율은 tell동사에서 제일 높고 그 다음이 teach, give동사 순임을 알 수 있다.

수동태 동사의 경우 give동사는 Academic> Newspaper> Magazine> Spoken 순이었고 tell동사는 Academic> Newspaper> Spoken> Magazine 순으로 나타났으며 teach동사는 Spoken> Academic> Magazine> Newspaper 순으로 나타나 그 사용양상에 있어 다른 두 동사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낮은 빈도수를 보이는 장르는 give, tell, teach 세 동사 모두 Fiction이었고 수동태의 장르별로 제일 높은 빈도수를 보인 것은 give동사의 Academic장르로써 18.88%의 비율을 보였다. 제일 낮은 비율을 보인 것은 tell동사의 Fiction으로 2.3%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인 수동태 비율은 give동사에서 제일 높고 그 다음이 teach, tell동사 순이었다.

### 3.3. 교과서 분석

언어교육에 있어서 문장중심의 해석과 교육보다는 담화중심적 교육이 중요하다(Candlin, 1973) 실제적이고 다양한 맥락 하에서 영어학습자들이 보다 진정성(authenticity)있는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수동태 문장표현의 반복학습과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황석복(2001)의 설문에 의하면 40명의 교사 중 단지 21명만이 수동태가 쓰이는 상황을 설명한다고 응답했으며 대부분은 수동태 교육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교과서에서 수동태의 기능이나 문맥적 활용에 대한 설명 없이 능동태를 수동태로 전환하는 획일적인 제시성향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은 EFL환경에서는 언어의 지속적인 입력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교과서와 같은 영어교재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기에 교과서에 다양한 수동태를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의 반복학습에 의한 유의미한 활용을 도울 필요가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의 언어기능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4대 영역의 통합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영어교과서는 도입,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연습문제, 활동, 문법, 정리, 보충 및 심화학습 등으로 구성되었다. 지금부터는 고등학교 I, II 영어교과서 5종 총 10권의 본문과 listening script에 나타난 수동태 동사의 사용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4형식 동사인 give, tell, teach동사의 수동태 비율 및 구어체·문어체별 수동태의 비율, 수동태의 시제별 빈도수를 분석해 보고, 다음으로 교과서에 나타난 전체 수동태 동사를 대상으로 하여 단위별 수동태 비율 및 전체 문장수 대비 수동태 비율, 구어체·문어체별 수동태의 비율, 수동태의 시제별 빈도수, be수동태와 기타 수동조동사의 빈도수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 3.3.1 give, tell, teach 동사의 수동태

<표 14> High School I, II 교과서에 나타난 give, tell, teach 동사의 능동, 수동태 비율

출판사	동사 교과서	give		tell		teach	
		능동태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
C	High School I	35	0	40	0	9	0
	High School II	28	4	24	1	2	0
D	High School I	43	9	23	1	3	0
	High School II	53	6	33	9	19	0
N	High School I	32	2	39	9	12	0
	High School II	36	4	29	1	9	1
K	High School I	25	8	31	0	5	1
	High School II	18	11	32	1	0	0
Y	High School I	38	16	30	1	5	2
	High School II	46	9	46	0	5	0
합 계 (비율%)		354 (83.69)	69 (16.31)	327 (93.43)	23 (6.57)	69 (94.52)	4 (5.48)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동사의 능동태:수동태 비율은 give동사의 경우, 83.69:16.31%, tell동사 93.43:6.57%, teach동사 94.52:5.48%로 나타났고 평균적인 능동태:수동태 비율은 90.55:9.45%로 코퍼스에서 세 동사의 능동태:수동태의 비율이 91.6:8.4%인 것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Give동사의 경우 tell, teach동사에 비해 수동태의 비율이 3배 정도 높은데, 이는 교과서의 특성상 lesson에서 'You will be given 2 minutes' 나 'Words are given' 과 같은 지시문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표 15> High School I, II 교과서에 나타난 give, tell, teach 동사의 구어체·문어체별 수동태 비율

출판사	교과서	장르	동사		
			give	tell	teach
C	High School I	구어체	0	0	0
		문어체	0	0	0
	High School II	구어체	1	1	0
		문어체	3	0	0
D	High School I	구어체	0	0	0
		문어체	9	1	0
	High School II	구어체	1	6	0
		문어체	5	3	0
N	High School I	구어체	0	4	0
		문어체	2	5	0
	High School II	구어체	0	0	0
		문어체	4	1	1
K	High School I	구어체	0	0	0
		문어체	8	0	1
	High School II	구어체	0	1	0
		문어체	11	0	0
Y	High School I	구어체	0	0	0
		문어체	16	1	2
	High School II	구어체	0	0	0
		문어체	9	0	0
합 계		구어체	2	12	0
		문어체	67	11	4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어체:문어체 비율은 give동사 1:33.5, tell동사 1:0.92, teach동사 0:4로, 평균적인 비율은 1:5.86으로 나타났다. 세 동사 모두 구어체에서보다 문어체에서 수동태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남으로써, 코퍼스의 Spoken에서 대체로 수동태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반면, Academic과 Newspaper에서의 비율은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16> High School I, II 교과서에 나타난 give 수동태 동사의 시제별 빈도수

출판사	시제	현재	과거	미래	진행형	현재완료	과거완료
	교과서						
C	High School I	0	0	0	0	0	0
	High School II	2	2	0	0	0	0
D	High School I	8	1	0	0	0	0
	High School II	6	0	0	0	0	0
N	High School I	1	0	1	0	0	0
	High School II	3	1	0	0	0	0
K	High School I	0	0	8	0	0	0
	High School II	3	0	8	0	0	0
Y	High School I	3	4	9	0	0	0
	High School II	4	0	4	0	1	0
합 계		30	8	30	0	1	0
(비율%)		(43.38)	(11.59)	(43.38)	(0)	(1.45)	(0)

Give동사의 경우 현재시제와 미래시제의 빈도수가 30회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 두 시제를 합한 비율이 전체의 87%로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퍼스의 경우 give동사의 현재시제가 전체의 50%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과거시제의 빈도수가 높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교과서에서는 미래시제의 빈도수가 현재시제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교과서의 특성상 lesson에서 ‘You will be given 2 minutes’와 같은 지시문에 의한 것이며, 과거시제의 비율은 11.6%, 현재완료는 1.45%이었고 진행형과 과거완료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17> High School I,II 교과서에 나타난 tell 수동태 동사의 시제별 빈도수

출판사	시제 교과서	현재	과거	미래	진행형	현재완료	과거완료
		C	High School I	0	0	0	0
	High School II	0	0	0	0	1	0
D	High School I	1	0	0	0	0	0
	High School II	0	3	0	0	6	0
N	High School I	3	6	0	0	0	0
	High School II	0	1	0	0	0	0
K	High School I	0	0	0	0	0	0
	High School II	0	1	0	0	0	0
Y	High School I	1	0	0	0	0	0
	High School II	0	0	0	0	0	0
합 계 (비율%)		5 (21.74)	11 (47.83)	0 (0)	0 (0)	7 (30.43)	0 (0)

Tell동사의 경우, give, teach동사에서 현재시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과거시제가 47.8%로 현재시제보다 2배 정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화에서 ‘어떤 얘기를 미래에 들을 것이다’ 내지는 ‘듣고 있다’, ‘듣는다’ 보다는 과거에 ‘어떤 얘기를 들었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BNC와 COCA에서 tell동사의 수동태 과거시제의 비율이 현재시제보다 1.7배 정도 높은 것과 일치하며, 현재완료시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코퍼스에서 수동태 완료시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18> High School I,II 교과서에 나타난 teach 수동태 동사의 시제별 빈도수

출판사	시제	현재	과거	미래	진행형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교과서						
C	High School I	0	0	0	0	0	0
	High School II	0	0	0	0	0	0
D	High School I	0	0	0	0	0	0
	High School II	0	0	0	0	0	0
N	High School I	0	0	0	0	0	0
	High School II	0	0	1	0	0	0
K	High School I	1	0	0	0	0	0
	High School II	0	0	0	0	0	0
Y	High School I	2	0	0	0	0	0
	High School II	0	0	0	0	0	0
합 계		3	0	1	0	0	0
(비율%)		(75)	(0)	(25)	(0)	(0)	(0)

Teach동사의 경우, 교수학습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의 성격상 교과서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제시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분석결과 오히려 give, tell동사에 비해 전체적으로 5배 정도 낮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수동태의 비율도 5.48%로 제일 낮게 나타나고 있다. 코퍼스에서 현재시제가 50% 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교과서에서도 현재시제가 몇 안되는 빈도수이지만 3회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으며 미래시제는 1회로 나타나고 있고 과거시제, 진행형, 완료시제는 보이지 않고 있다.

### 3.3.2. 수동태 동사의 비율

<표 19> C 교과서 High School I 의 수동태 비율

단원	주 제	수동태 분포		수동태 비율(%)	
		수동태	전체문장	단원별 수동태	총 문장의 수동태
1	나라별 인상말	24	483	9.49	4.97
2	자연의 혜택	40	477	15.81	8.39
3	우리나라 전통문화 (인터뷰)	30	520	11.86	5.77
4	과학자	42	551	16.60	7.62
5	여행지	43	490	17.00	8.78
6	미술	41	502	16.21	8.17
7	현명한 소비	30	392	11.86	7.65
기타	소설 「The copy」 (복제인간)	3	196	1.19	1.53
합 계		253	3,611	100	7.01

<표 20> C 교과서 High School II 의 수동태 비율

단원	주 제	수동태 분포		수동태 비율(%)	
		수동태	전체문장	단원별 수동태	총 문장의 수동태
1	미래의 꿈	36	621	12.81	5.80
2	완곡한 영어표현	56	514	19.93	10.89
3	창의적인 삶	49	541	17.44	9.06
4	독서	35	591	12.46	5.92
5	생활 속의 수학	38	539	13.52	7.05
6	문화 교류	41	537	14.59	7.64
7	에너지 절약 체험기	20	585	7.12	3.42
기타	소설 「Gourd」	6	214	2.14	2.80
합 계		281	4,142	100	6.78

C교과서의 경우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 문장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수동태 문장의 수도 253개에서 281개로 함께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2학년 교과서의 전체 수동태의 비율은 각각 7.01%, 6.78%로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인 단원에서 수동태 문장의 분포가 비교적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가장 수동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단원은 1학년 교과서 5과(17%)와 4과(16.6%), 2학년 교과서 2과(19.93%)와 3과(17.44%)이며 과학자에 관한 글이나 여행, 완곡한 영어표현이나 창의성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단원에서 비교적 높은 수동태의 비율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단원의 소설 「The copy」, 「Gourd」에서 수동태 비율이 각각 1.19%, 2.14%로 매우 낮은 이유는 화자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소설장르의 특징으로 보여지며 2학년 교과서의 7과에서 수동태 비율이 7.12%로 소설 다음으로 낮은 이유는 한 가족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험한 실험적 생활을 다룬 글로써 주관적인 관점에서 서술된 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Language focus에서 수동태를 제시한 단원은 1학년 교과서는 2과, 6과로 6과에서는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 부사절의 분사구문이 제시되어 있었고 2학년 교과서의 5과에서는 수동태 과거완료시제와 과거시제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연습문제가 제시되어 있었으며 다양한 예문이나 특별한 설명은 없었다.

<표 21> D 교과서 High School I 의 수동태 비율

단원	주 제	수동태 분포		수동태 비율(%)	
		수동태	전체문장	단원별 수동태	총 문장의 수동태
1	새학기 목표	41	494	10.41	8.30
2	여러 나라의 길거리 음식	55	447	13.96	12.30
3	동식물 관찰	36	484	9.14	7.44
4	올림픽	53	464	13.45	11.42
5	추리소설	46	506	11.68	9.09
6	우리나라 유적지	101	472	25.63	21.40
7	TV시청에 관한 의견	36	515	9.14	6.99
8	노년의 활기찬 인생	26	522	6.60	4.98
합 계		394	3,904	100	10.09

<표 22> D 교과서 High School II 의 수동태 비율

단원	주 제	수동태 분포		수동태 비율(%)	
		수동태	전체문장	단원별 수동태	총 문장의 수동태
1	재능기부	25	474	5.36	5.27
2	Little hero (아동노동 해방운동가)	85	439	18.24	19.36
3	에너지 절약	68	468	14.59	14.53
4	소설 「비밀의 화원」	50	553	10.73	9.04
5	Noblesse oblige	63	422	13.52	14.93
6	역사 속의 미스터리	65	427	13.95	15.22
7	소년의 희망	48	518	10.30	9.27
8	자연재해	62	459	13.30	13.51
합 계		466	3,760	100	12.39

D교과서의 경우 1학년 교과서에서보다 2학년 교과서에서 전체 문장수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수동태 문장의 비율은 10.09%에서 12.39%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단원에 수동태 문장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1학년 교과서의 6과(25.63%)에서 수동태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유적지에 관한 단원으로써 역사적인 유적지에 대한 설명문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보여지며, 2학년 교과서의 2과(18.24%)에서도 수동태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어린이노동 해방운동가 Iqbal Masih에 대한 전기문이 제시되어 있는 단원으로 그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 계속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수동태가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학년 교과서의 8과(6.6%)와 2학년 교과서의 1과(5.36%)에서는 수동태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두 단원의 주제는 각각 노년의 활기찬 인생과 재능기부으로써 자신이 주체가 되어 보람된 인생을 살고자 하는 내용의 특성상 수동태 문장이 적게 쓰여진 것으로 보여진다. 1학년 교과서의 경우 4과의 language structure에서 부사절의 분사구문을 제시하고 있었지만 특별한 설명은 없었고 2학년 교과서의 문법학습에서는 명시적으로 수동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2과의 reading에서 상당히 많은 수동태 문장을 사용하고 있었다.

<표 23> N 교과서 High School I 의 수동태 비율

단원	주 제	수동태 분포		수동태 비율(%)	
		수동태	전체문장	단원별 수동태	총 문장의 수동태
1	친구와의 우정	16	492	4.43	3.25
2	창의성	50	485	13.85	10.31
3	요리	59	492	16.34	11.99
4	사회평등	60	475	16.62	12.63
5	학교행사	21	560	5.82	3.75
6	응급상황 대처	33	477	9.14	6.92
7	한국의 문화	51	421	14.13	12.11
8	자연의 혜택	71	459	19.67	15.47
합 계		361	3,861	100	9.35

<표 24> N 교과서 High School II 의 수동태 비율

단원	주 제	수동태 분포		수동태 비율(%)	
		수동태	전체문장	단원별 수동태	총 문장의 수동태
1	효과적인 학습	21	523	5.53	4.02
2	자존감 높이기	56	622	14.74	9.00
3	영화제작기술	64	512	16.84	12.50
4	외국어 학습	39	510	10.26	7.65
5	직업	34	460	8.95	7.39
6	여가활동	41	471	10.79	8.70
7	환경오염	66	437	17.37	15.10
8	사진의 역사	59	441	15.53	13.38
합 계		380	3,976	100	9.56

N교과서의 경우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 문장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수동태 문장의 빈도수도 증가하고 있고 전체 수동태 문장의 비율은 각각 9.35%, 9.56%로써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인 단원에서 수동태 문장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수동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단원은 1학년 교과서 8과(19.67%)와 4과(16.34%), 2학년 교과서 7과(17.37%)와 3과(16.84%)이며 이는 자연의 혜택, 사회평등, 영화제작기술, 환경오염을 주제로 삼고 있는 단원으로 행위자보다는 행위자체나 행위의 결과를 중요시함으로 인해 수동태 문장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학년 교과서 1과(4.43%)와 2학년 교과서 1과(5.53%)의 수동태 비율이 매우 낮은 이유는 친구와의 우정, 효과적인 학습 등 정의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주제로 인해 주관적인 관점에서 서술함으로써 수동태 문장을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1학년 교과서의 경우 4과, 6과, 7과, 8과의 focus on form에서 수동태 문장이 제시되어 있었고 6과, 7과에서 각각 전치사를 동반한 독립분사구문,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가 제시되고 있었으며 2학년 교과서에서는 6과의 topic부분에 부사절의 분사구문이 제시되고 있었고 7과의 focus on form에 사역수동태가 제시됨으로써 가장 다양한 형태의 수동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5> K 교과서 High School I 의 수동태 비율

단원	주 제	수동태 분포		수동태 비율(%)	
		수동태	전체문장	단원별 수동태	총 문장의 수동태
1	건강한 생활습관	22	414	10.53	5.31
2	음악과 리듬의 즐거움	15	357	7.18	4.20
3	문화의 차이	22	338	10.53	6.51
4	독서	17	361	8.13	4.71
5	자연의 신비	48	285	22.97	16.84
6	효과적인 학습방법	24	413	11.48	5.81
7	불안감 해소법	27	380	12.92	7.11
8	발명	34	332	16.27	10.24
합 계		209	2,880	100	7.26

<표 26> K 교과서 High School II 의 수동태 비율

단원	주 제	수동태 분포		수동태 비율(%)	
		수동태	전체문장	단원별 수동태	총 문장의 수동태
1	유머에 관한 글	14	366	5.47	3.83
2	발명(인터뷰)	43	312	16.80	13.78
3	한국 전통시장	21	321	8.20	6.54
4	작곡	21	362	8.20	5.80
5	과거의 생활상	26	341	10.16	7.62
6	목표실현	52	392	20.31	13.27
7	예술작품	45	338	17.58	13.31
8	소설 「The birthmark」	34	426	13.28	7.98
합 계		256	2,858	100	8.96

K교과서의 경우 1학년 교과서에서보다 2학년 교과서에서 전체 문장수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수동태 문장의 비율은 7.26%에서 8.96%로 증가하고 있고 전체적인 단원에서 수동태 문장의 분포가 비교적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가장 수동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단원은 1학년 교과서 5과(22.97%)로 자연의 신비로운 현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설명문의 형식을 띠고 있다. 2학년 교과서에서는 6과(20.31%)와 7과(17.58%)에서 높은 수동태 빈도수를 보이고 있는데 6과에서는 브루클린 다리를 건설하는 꿈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과정을 수동태 문장을 사용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고 7과에서는 예술작품에 대한 설명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동태 문장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학년 교과서 2과(7.18%)와 2학년 교과서 1과(5.47%)에서 수동태의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단원의 주제는 각각 음악과 리듬, 유머에 관한 글로써 우리의 일상에 활력소가 되고 즐겁게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관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감으로써 상대적으로 수동태 문장이 적게 사용되고 있다. Language form에서 수동태를 제시한 단원은 1학년 교과서 5과, 7과로 각각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 전치사를 동반한 독립분사구문이 비교적 다양한 예문과 함께 제시되고 있었으며 2학년 교과서의 5과에서 유일하게 미래완료시제를 제시하고 있었다는 점은 특이할 만하다.

<표 27> Y 교과서 High School I 의 수동태 비율

단원	주 제	수동태 분포		수동태 비율(%)	
		수동태	전체문장	단원별 수동태	총 문장의 수동태
1	음악과의 새로운 인생	28	443	9.76	6.32
2	건강한 생활	29	459	10.10	6.32
3	소설 「The lady of the tiger」	39	425	13.59	9.18
4	신체장애 극복	45	490	15.68	9.18
5	생체과학	57	428	19.86	13.32
6	여행	46	422	16.03	10.90
7	미국의 길거리 음식	43	479	14.98	8.98
합 계		287	3,146	100	9.12

<표 28> Y 교과서 High School II 의 수동태 비율

단원	주 제	수동태 분포		수동태 비율(%)	
		수동태	전체문장	단원별 수동태	총 문장의 수동태
1	독서	44	449	12.36	9.80
2	동물 기르기	61	569	17.13	10.72
3	예술작품 감상	39	396	10.96	9.85
4	환경오염	65	541	18.26	12.01
5	역사 속 신화	41	400	11.52	10.25
6	과학과 기술	57	414	16.01	13.77
7	캐릭터 상품	49	494	13.76	9.92
합 계		356	3,263	100	10.91

Y교과서의 경우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 문장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수동태 문장의 비율도 9.12%에서 10.91%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단원에서 수동태 문장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수동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단원은 1학년 교과서 5과(19.86%), 2학년 교과서 4과(18.26%)와 2과(17.13%)로, 각각 생체과학, 환경오염, 동물 기르기 등을 주제로 삼고 있으며 행위자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으면서 비행위자를 주어로 삼는 수동태 문장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학년 교과서 1과(9.76%), 2과(10.10%), 2학년 교과서 3과(10.96%)에서 수동태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친구와의 우정, 효과적인 학습, 예술작품 감상 등 주어의 의지가 문장의 서술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를 다룸으로써 상대적으로 수동태 문장을 적게 사용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1학년 교과서의 경우 6과의 grammar에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연습문제가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었으며 2학년 교과서에서는 4과의 grammar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가 제시되어 있었다.

### 3.3.3. 수동태 동사의 유형

중학교 영어교과서 분석결과, 전체 수동태 중 be수동태가 91.89%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고 get수동태는 3.4%로 나타났으며(이미현, 2013) 미국 초등학교 reading교재의 수동태를 Article, Lesson, Fiction, Drama의 네 장르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get수동태는 Fiction에서 3.2%, Drama에서 1.6% 쓰인 것을 제외하면 Article과 Lesson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이한창, 2003). 객관적으로 화자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고자 할 때에는 be수동태가 사용되는 반면, 행동이나 동작의 느낌을 강조하거나 화자 또는 저자의 감정을 개입시키고자 할 때에는 'be'이외에 다른 수동조동사인 'get, become,

grow'를 사용하게 된다(이영주, 2006). 다음은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5종 총 10권에 나타난 be수동태, get수동태, become수동태, grow수동태, 사역수동태의 빈도수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다.

<표 29> High School I, II 교과서의 수동태 유형

수동태유형 출판사별 교과서		be p.p (비율)	get p.p (비율)	become p.p (비율)	grow p.p (비율)	사역 수동태 (비율)	합계 (비율)
C	High School I	238 (94.07)	10 (3.95)	5 (1.98)		0	253 (100)
	High School II	270 (96.09)	6 (2.14)	3 (1.07)		2 (0.71)	281 (100)
D	High School I	375 (95.18)	8 (2.03)	4 (1.02)		7 (1.78)	394 (100)
	High School II	451 (96.78)	8 (1.72)	5 (1.07)		2 (0.43)	466 (100)
N	High School I	348 (96.40)	13 (3.60)	0		0	361 (100)
	High School II	366 (96.32)	7 (1.84)	0		7 (1.84)	380 (100)
K	High School I	198 (94.74)	6 (2.87)	1 (0.48)		4 (1.91)	209 (100)
	High School II	244 (95.31)	6 (2.34)	2 (0.78)		4 (1.56)	256 (100)
Y	High School I	286 (99.65)	0	0		1 (0.35)	287 (100)
	High School II	342 (96.07)	7 (1.97)	4 (1.12)		3 (0.84)	356 (100)
합 계 (비율%)		3,118 (96.15)	71 (2.19)	24 (0.74)	0	30 (0.93)	3,243 (100)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I,II 교과서의 be수동태는 평균 96.15%이고 get수동태는 2.19%로써 이미현(2013)의 중학교 교과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be수동태의 쓰임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Become수동태의 비율은 0.74%로 미미하였고 특이할 만한 점은 grow수동태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과 'have/get/make 목적어 p.p' 형식의 사역수동태의 비율이 become수동태의 비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 Y교과서와 N교과서, 2학년 N교과서의 경우 become수동태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었고 고등학교 1학년 Y교과서에서는 get수동태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었으며 사역수동태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1학년 C교과서와 N교과서에서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은데 학습자들의 수동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상태보다는 동작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get수동태를 비롯하여 다양한 수동조동사를 교과서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3.3.4. 구어체, 문어체별 수동태 동사의 비율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의 구어체 총 4,163개의 문장 중에서 수동태 문장은 163개로 약 3.9%의 비율이었고 문어체는 총 2,959개의 문장 중에서 287개가 수동태 문장으로 약 9.7%의 비율을 나타냈는데, 이와 같이 언어는 격식성(formality)에 따라 같은 언어형식이라도 빈도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박미나, 2008). 지금부터는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5종 총 10권에 나타난 구어체(인터뷰, 대화, 토론)와 문어체(Fiction, 편지글, 설명문, 뉴스, 과학, Lesson, 조언의 성격이 강한 글)별 수동태 문장의 비율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표 30> High School I, II 교과서의 구어체, 문어체별 수동태 비율

출판사	교과서구분	장르구분	수동태 문장수	총 문장수	수동태 비율 (%)
C	High School I	구어체	79	1,420	5.56
		문어체	174	2,191	7.94
	High School II	구어체	66	1,586	4.16
		문어체	215	2,556	8.41
D	High School I	구어체	91	1,542	5.90
		문어체	303	2,362	12.83
	High School II	구어체	114	1,324	8.61
		문어체	352	2,436	14.45
N	High School I	구어체	48	960	5.00
		문어체	313	2,901	10.79
	High School II	구어체	66	1,173	5.63
		문어체	314	2,803	11.20
K	High School I	구어체	50	1,074	4.66
		문어체	159	1,806	8.80
	High School II	구어체	60	995	6.03
		문어체	196	1,863	10.52
Y	High School I	구어체	69	1,159	5.95
		문어체	218	1,987	10.97
	High School II	구어체	65	1,260	5.16
		문어체	291	2,003	14.53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과서에 제시된 총 문장수 35,401개 중 수동태 문장은 3,243개로써 9.1%로 나타났으며 김원영(2004)의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분석결과 수동태 문장이 15.9%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는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총 문장을 구어체와 문어체로 분리하여 수동태 문장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앞선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어체에서보다 문어체에서 수동태 문장의 비율이 높았고 구어체의 수동태 비율은 5.67%, 문어체의 수동태 비율은 11.04%로 문어체에서 약 2배의 수동태가 나타나고 있었다. 문어체로 쓰인 글에서는 누가 그 글을 썼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는 행위의 결과나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이 사용되는 빈도가 높은 반면, 구어체에서는 화자나 작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고가 청자나 독자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의 빈도수는 낮게 나타나게 된다(박미나, 2008). 구어체의 수동태 문장은 고등학교 2학년 D교과서(8.61%)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고등학교 2학년 C교과서(4.16%)에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문어체의 수동태 문장은 고등학교 2학년 Y교과서(14.53%)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고등학교 1학년 C교과서(7.94%)에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나 교과서에 따라서는 그 비율에 있어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3.5. 수동태 문장의 시제별 빈도수

이경민(2008)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시제는 실생활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현재와 과거형의 수동태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중학교 교과서보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다 다양한 시제의 수동태가 소개되고 있었는데 중학교 교과서는 현재> 과거> 미래=현재진행형=현재완료형 순의 수동태 분포를 보였고 과거완료형은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고등학교 교과서의 수동태는 현재> 과거=현재진행> 과거완료> 현재완료형 순으로 나타났고 미래형은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고등학교 교과서 5종 총 10권에 제시된 수동태 문장을 단원별로 분류하여 현재, 과거, 미래, 진행, 현재완료, 과거완료의 빈도수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표 31> C 교과서 High School I 에 나타난 수동태 문장의 시제별 빈도수

단원	주 제	현재	과거	미래	진행	현재 완료	과거 완료
1	나라별 인삿말	19	5				
2	자연의 혜택	25	9		4	2	
3	우리나라 전통문화 (인터뷰)	21	6			3	
4	과학자	25	15		2		
5	여행지	27	8		1	6	1
6	미술	33	7		1		
7	현명한 소비	25	4				1
기타	소설 「The copy」 (복제인간)	1	1				1
합 계		176	55	0	8	11	3
비 율(%)		69.57	21.74	0	3.16	4.35	1.19

<표 32> C 교과서 High School II에 나타난 수동태 문장의 시제별 빈도수

단원	주 제	현재	과거	미래	진행	현재 완료	과거 완료
1	미래의 꿈	22	9		2	3	
2	완곡한 영어표현	50	4		1	1	
3	창의적인 삶	29	15	1	1	3	
4	독서	25	8		1	1	
5	생활 속의 수학	21	10	2	1		4
6	문화교류	19	16	1		5	
7	에너지 절약 체험기	13	7				
기타	소설 「The gourd」	1	3	1			1
합 계		180	72	5	6	13	5
비 율(%)		64.06	25.62	1.78	2.14	4.63	1.78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시제가 1,2학년 교과서에서 각각 69.57%, 64.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과거시제는 21.74%, 25.62%로 나타나고 있으며 진행형은 3.16%, 2.14%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완료는 4.35%, 4.63%로써 진행형보다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고 과거완료는 1.19%, 1.78%로 오히려 진행형보다 낮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래시제는 1학년 교과서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 2학년 교과서에서는 1.78%로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정리하면 현재> 과거> 현재완료> 진행> 과거완료> 미래의 순으로 글의 주제가 미술, 완곡한 영어표현 등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 단원에서 현재시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과학자의 어린시절의 호기심, 과거의 문화교류 등을 다룬 단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과거시제가 나타나고 있다.

<표 33> D 교과서 High School I 에 나타난 수동태 문장의 시제별 빈도수

단원	주 제	현재	과거	미래	진행	현재 완료	과거 완료
1	새학기 목표	35	6				
2	여러 나라의 길거리 음식	50	5				
3	동식물 관찰	33	2	1			
4	올림픽	24	23		2	4	
5	추리소설	21	21	1	2	1	
6	우리나라 유적지	29	66	3		3	
7	TV시청에 관한 의견	31	1	1	1	1	1
8	노년의 활기찬 인생	13	7	3	1	1	1
합 계		236	131	9	6	10	2
비 율(%)		59.90	33.25	2.28	1.52	2.54	0.51

<표 34> D 교과서 High School II 에 나타난 수동태 문장의 시제별 빈도수

단원	주 제	현재	과거	미래	진행	현재 완료	과거 완료
1	재능기부	17	6	2			
2	Little hero (아동노동 해방운동가)	33	47	3	1	1	
3	에너지 절약	47	13	7		1	
4	소설 「비밀의 화원」	16	29			1	4
5	Noblesse oblige	39	23	1			
6	역사 속의 미스터리	26	26		1	12	
7	소년의 희망	29	11	4		4	
8	자연재해	30	23	1		7	1
합 계		237	178	18	2	26	5
비 율(%)		50.86	38.20	3.86	0.43	5.58	1.07

표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시제가 1,2학년 교과서에서 각각 59.9%, 50.86%이고 과거시제는 33.25%, 38.2%로써 C교과서에 비해 과거시제의 비율이 약 10%정도 높고 상대적으로 현재시제의 비율은 10%정도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진행형은 1.52%, 0.43%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현재완료는 2.54%, 5.58%로써 진행형보다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과거완료는 0.51%, 1.07%로 진행형보다도 낮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고 미래시제는 2.28%, 3.86%로 C교과서에서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정리하면 현재> 과거> 현재완료> 미래> 진행> 과거완료의 순으로 과거시제의 비율이 C교과서보다 현저히 높은 이유는 글의 주제가 유적지나 역사, 자연재해 등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기술하거나 어린이노동 해방운동가가 어렸을 때 당했던 부당한 일을 기술하면서 상당히 많은 과거시제의 문장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여러 나라의 길거리 음식을 소개하는 과에서 현재시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에너지 절약에 대해 기술하는 과에서는 현재의 어떤 현상 때문에 미래에는 어떤 일이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 전개로 인해 현재와 미래시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역사 속의 미스테리를 다룬 과에서는 그 기원에 대해 소개하면서 현재까지 어떻게 쓰여왔거나 추측되어 왔다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현재완료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5> N 교과서 High School I 에 나타난 수동태 문장의 시제별 빈도수

단원	주 제	현재	과거	미래	진행	현재 완료	과거 완료
1	친구와의 우정	9	5			2	
2	창의성	39	9	2			
3	요리	37	20	2			
4	사회평등	43	14	1	1	1	
5	학교행사	14		3		4	
6	응급상황 대처	16	11	2		2	2
7	한국의 문화	32	13	5		1	
8	자연의 혜택	31	26		3	10	1
합 계		221	98	15	4	20	3
비 율(%)		61.22	27.15	4.16	1.11	5.54	0.83

<표 36> N 교과서 High School II 에 나타난 수동태 문장의 시제별 빈도수

단원	주 제	현재	과거	미래	진행	현재 완료	과거 완료
1	효과적인 학습	17	2			2	
2	자존감 높이기	41	15				
3	영화제작기술	47	12	3		1	1
4	외국어 학습	27	11			1	
5	직업	15	15	3	1		
6	여가활동	29	11	1			
7	환경오염	59	5	1		1	
8	사진의 역사	22	28	2	3	3	1
합 계		257	99	10	4	8	2
비 율(%)		67.63	26.05	2.63	1.05	2.11	0.53

표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시제가 1,2학년 교과서에서 각각 61.22%, 67.63%이고 과거시제는 27.15%, 26.05%로써 C교과서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행형은 1.11%, 1.05%로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현재완료는 5.54%, 2.11%로써 진행형보다는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과거완료는 0.83%, 0.53%로 진행형보다 낮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고 미래시제는 4.16%, 2.63%로 C교과서에서보다 높고 D교과서와는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정리하면 D교과서와 같이 현재>과거>현재완료>미래>진행>과거완료의 순으로 과거완료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평등, 환경오염을 다룬 과에서는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면서 현재시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자연의 혜택에 관한 단원에서는 자연의 산물들이 과거 어떻게 인간을 이롭게 하기 시작했가에 대해 기술하면서 과거시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사진의 역사에 대한 단원에서도 과거시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7> K 교과서 High School I 에 나타난 수동태 문장의 시제별 빈도수

단원	주 제	현재	과거	미래	진행	현재 완료	과거 완료
1	건강한 생활습관	11	5	4			2
2	음악과 리듬의 즐거움	12	2	1			
3	문화의 차이	16	4	2			
4	독서	7	8	1		1	
5	자연의 신비	30	11	1		6	
6	효과적인 학습방법	17	1	5		1	
7	불안감 해소법	25	1	1			
8	발명	16	13	2		3	
합 계		134	45	17	0	11	2
비 율(%)		64.11	21.53	8.13	0	5.26	0.96

<표 38> K 교과서 High School II에 나타난 수동태 문장의 시제별 빈도수

단원	주 제	현재	과거	미래	진행	현재 완료	과거 완료
1	유머에 관한 글	8	4	2			
2	발명(인터뷰)	26	13	2		2	
3	한국 전통시장	9	9	1		1	1
4	작곡	16	3	2			
5	과거의 생활상	15	3	1		1	(미래 완료6)
6	목표실현	21	28	1		2	
7	예술작품	22	14	2	2	5	
8	소설 「The birthmark」	18	9	3		3	1
합 계		135	83	14	2	14	8
비 율(%)		52.73	32.42	5.47	0.78	5.47	3.13

표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시제가 1,2학년 교과서에서 각각 64.11%, 52.73%이고 과거시제는 21.53%, 32.42%이며 미래시제는 8.13%, 5.47%로 타 교과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1학년 교과서에서 진행형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2학년 교과서에서도 0.78%로써 타 교과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정리하면 현재> 과거> 미래> 현재완료> 과거완료> 진행의 순으로 진행형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발명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시제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발명과 목표실현을 다룬 과에서 발명품을 만들거나 브루클린 다리를 건설하는 과정을 과거시제의 수동태를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기술하면서 과거시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완료는 타 교과서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 focus on form의 중점사항으로 미래완료가 제시되면서 10권의 교과서 중 유일하게 미래완료시제가 제시되고 있

다. 과거완료는 진행형보다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고 미래시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lesson의 지시문에 ‘You will be given 2 minutes’ 라는 문장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표 39> Y 교과서 High School I 에 나타난 수동태 문장의 시제별 빈도수

단원	주 제	현재	과거	미래	진행	현재 완료	과거 완료
1	음악과의 새로운 인생	19	9				
2	건강한 생활	25	3			1	
3	소설 「The lady of the tiger」	16	22			1	
4	신체장애 극복	29	8	7		1	
5	생체과학	38	14	1	2	1	1
6	여행	35	9			2	
7	미국의 길거리 음식	30	6	6		1	
합 계		192	71	14	2	7	1
비 율(%)		66.9	24.74	4.88	0.7	2.44	0.35

<표 40> Y 교과서 High School II 에 나타난 수동태 문장의 시제별 빈도수

단원	주 제	현재	과거	미래	진행	현재 완료	과거 완료
1	독서	26	16	1		1	
2	동물 기르기	37	13	7		4	
3	예술작품 감상	15	22	2			
4	환경오염	52	8	5			
5	역사 속 신화	17	20			4	
6	과학과 기술	48	4	2	1	2	
7	캐릭터 상품	24	19	3	1	2	
합 계		219	102	20	2	13	0
비 율(%)		61.52	28.65	5.62	0.56	3.65	0

표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시제가 1,2학년 교과서에서 각각 66.9%, 61.52%이고 과거시제는 24.74%, 28.65%이며 미래시제는 4.88%, 5.62%로 K 교과서보다는 낮지만 타 교과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진행형은 0.7%, 0.56%로 K교과서보다는 높지만 타 교과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완료는 2.44%, 3.65%로 타 교과서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1학년 교과서에서의 과거완료시제는 0.35%이고 2학년 교과서에서는 과거완료시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정리하면 현재> 과거> 미래> 현재완료> 진행> 과거완로의 순으로 진행형과 과거완료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경 오염, 과학과 기술을 다룬 과에서 현재시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한 남자가 감옥에 갇힌 후 겪게 되는 역경을 다룬 소설, 예술작품이 탄생한 과정, 역사 속 신화를 다룬 과에서는 과거시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미래시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lesson의 지시문에 'You will be given 2 minutes' 라는 표현과 연습문제에 'will be closed', 'will be posted' 와 같은 공지글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 3.3.6. 연구결과분석

대용량 코퍼스인 BNC, COCA, COHA를 분석도구로 하여 4형식 동사인 give, tell, teach동사를 중심으로 원어민 화자들의 수동태 사용양상을 살펴본 결과, 평균적인 수동태 비율은 8.4%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등학교 I, II 영어교과서에서 세 동사의 수동태 비율이 9.45%인 것과, 또한 교과서 내 총 문장수 35,401개 중 수동태 문장이 3,243개인 9.1%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BNC, COCA에서 평균적인 수동태 비율은 give동사에서 제일 높고 그 다음이 tell, teach동사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과서에

나타난 세 동사의 수동태 비율 순서와 일치하고 있으며 COHA에서의 수동태 비율은 give동사에서 제일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teach, tell동사 순임을 알 수 있었다.

Give, tell동사 수동태의 경우 코퍼스의 Fiction과 Spoken에서는 낮은 비율로, Academic과 News에서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결과, 세 동사의 수동태의 비율이 구어체에서보다 문어체에서 6배 정도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교과서 내 전체 수동태 동사의 구어체 비율은 5.67%, 문어체의 비율은 11.04%로 구어체에서보다 문어체에서의 수동태 비율이 2배 정도 높게 나타난 것과, C교과서의 Special Unit에 소개된 소설 「The copy」, 「Gourd」에서 수동태 비율이 각각 1.19%, 2.14%로 현저히 낮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고 있다.

세 동사 중 예외적으로, teach동사 수동태의 경우에는 BNC, COCA의 Spoken에서 오히려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 BNC의 Academic에서 낮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특이할 만한 점이다. 이는 teach동사의 성격이나 쓰임이 give나 tell동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지며 일반적인 수동태 동사의 사용양상과도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어교과서 분석결과,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 모든 교과서에서 수동태 문장수의 증가를 보였다. C교과서의 경우 수동태 문장수는 1학년, 2학년이 각각 253개, 281개였고 D교과서는 1학년 394개, 2학년 466개였으며 N교과서는 1학년 361개, 2학년 380개였고 K교과서는 1학년 209개, 2학년 256개였으며 Y교과서는 1학년 287개, 2학년 356개였다. 2학년 D교과서의 경우 가장 많은 수동태가(466개)가 쓰였고 1학년 K교과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수동태(209개)가 쓰임으로써 두 교과서가 수동태 문장수에 있어 2.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총 문장의 수동태 비율을 살

펴보면, C교과서의 경우 1학년, 2학년이 각각 7.01%, 6.78%, D교과서는 1학년 10.09%, 2학년 12.39%, N교과서는 1학년 9.35%, 2학년 9.56%, K교과서는 1학년 7.26%, 2학년 8.96%, Y교과서는 1학년 9.12%, 2학년 10.91%로 2학년 D교과서의 경우 가장 높은 수동태 비율을 보였고(12.39%), 2학년 C교과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수동태(6.78%)가 쓰임으로써 교과서에 따라서는 그 비율에 있어 1.8배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과서에서 수동태 동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문단의 주제를 보면 역사, 유적지, 생체과학, 발명 등으로 학술적인 글에서는 객관성과 사실 등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수동태의 사용빈도가 높은 반면, 친구와의 우정, 예술작품 감상 등의 글이나 소설에서는 저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해나가는 글의 특성으로 인해 수동태의 사용빈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수동태의 분포는 Fiction이나 대화체에서보다는 과학과 관계되는 글, 저널리즘과 같은 산출물 또는 일어난 일에 초점을 두는 장르에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한 Celce-Murcia & Larsen-Freeman(199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Huddleston(1971)과 Shintani(1979) 또한 앞선 연구에서 대화체 <픽션 <저널리즘 <과학 순으로 수동태의 쓰임이 많아진다는 것을 증명한 바 있다.

코퍼스에서 세 수동태 동사의 시제별 빈도수는 give동사의 경우 현재> 과거> 현재완료> 과거완료> 진행> 미래 순으로 나타났고 tell동사는 과거> 현재> 현재완료> 진행> 과거완료> 미래였으며 teach동사의 경우 현재> 과거> 현재완료> 진행> 과거완료> 미래 순으로 나타났다. 세 동사의 평균적인 수동태 비율은 현재형이 평균 42.7%로 제일 높았고 다음이 과거(31.4%), 현재완료(1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진행형(5.7%), 과거완료(5.4%)와, 미래시제(1.8%)의 비율은 매우 미미하였다. 교과서에서 세 수동태 동사의 시제별 빈도수는 give동사의 경우, 현재시제와 미래시제가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과서의 특성상 lesson에서 ‘You will be given 2 minutes’ 라

는 지시문이 자주 제시됨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미래시제가 현재시제와 동일한 빈도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Tell동사의 경우 다른 두 동사와는 달리, 과거시제의 비율이 47.83%로 현재시제보다 2배 정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고 현재완료시제 또한 30.43%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Teach동사의 경우 능동태, 수동태를 합한 전체 빈도수가 현저히 낮았고 수동태의 비율도 5.48%로 제일 낮게 나타났는데, 그 중 현재시제가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었다.

교과서 내 전체 수동태 동사의 시제별 빈도수는 현재> 과거> 현재완료> 미래> 진행> 과거완료의 순으로 현재(61.9%)와 과거(27.9%)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현재완료(4.2%), 미래(3.9%)와 진행형(1.1%), 과거완료(1%)의 비율은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으며 현재완료, 과거완료, 진행형의 경우 코퍼스에서보다 3~5배 정도 낮은 비율을 보였고 있고 미래시제의 경우 코퍼스에서보다 2배 정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다.

Tell동사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BNC와 COCA에서 수동태 과거형의 비율이 현재형보다 1.7배 정도 높은 것은 특이할 만한 사실로 이는 교과서에서 tell동사의 분석결과와 유사하며, 흔히 대화에서 ‘듣는다’,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과거에 ‘어떤 얘기를 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영어에서도 같은 이유로 과거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여진다. 코퍼스에서는 전반적으로 능동태 진행형의 비율이 수동태 진행형보다 4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되어지고 있다’ 라는 표현보다는 ‘~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teach동사에서 능동태 진행형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로써 이는 보통 대화를 나눌 때 ‘가르칠 것이다’, ‘가르쳤었다’ 라는 표현보다는 ‘가르치고 있다’ 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세 동사 모두 BNC, COCA, COHA에서 능동태에서보다 수동태에서의 진행형의 빈도수는 낮은 반면, 현재완료시제는 5배 정도, 과거완료 시제는 2.5배 정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 과학의 발전, 교훈적인 인물 등을 기술할 때 수동태 완료시제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코퍼스의 수동태 진행형 비율은 평균 5.7%로 영어교과서의 전체 수동태 동사의 진행형 비율인 1.1%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등학교 1학년 K교과서에서는 진행형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코퍼스에서 세 동사의 수동태 미래시제는 'will be p.p'가 89.01%로 'going to be p.p'의 10.99%에 비해 압도적인 비율로 나타났으며 예외적으로 COCA의 tell동사에서 'going to be p.p'가 49.15%로 'will be p.p'의 50.85%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다.

수동태 미래시제의 빈도수는 코퍼스와 교과서에서 대체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K, Y 교과서에서 미래시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lesson에서 'You will be given 2 minutes' 라는 지시문과 공지글에서의 'will be closed', 'will be posted'라는 표현으로 인한 것이다.

외국생활의 경험이 없는 대학교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동태 시제 습득연구에서 진행형은 가장 정답율이 낮은 항목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학습자들이 'be being p.p' 형태에서 'being'이 사용된다는 것을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임이 밝혀졌다. 또한 미래시제는 현재시제와 과거시제보다는 상당히 습득순서가 낮았는데 이는 미래시제는 단순히 be동사의 시제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will'이라는 조동사를 사용하기 때문으로(김정인, 2002) 교과서에서 수동태의 진행형이나 미래시제에 대한 적합한 예문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코퍼스와 교과서에서 수동태의 완료시제는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코퍼스에서 과거완료시제(5.4%)는 현재완료시제(13%)보다도 더욱 낮

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고 교과서 내 전체 수동태 동사의 과거완료시제(1%) 또한 현재완료시제(4.2%)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특히 고등학교 2학년 Y교과서에서는 과거완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었다.

시제의 인식과 사용능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많은 한국학생들이 과거완료를 과거로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는데,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과거완료에 대해 한국학생들은 모국어의 시제 체계에 의존함으로써 응답자의 54% 이상이 과거완료를 과거로 답하였다(박철, 2004). 따라서 과거완료시제의 사용빈도가 낮다 하더라도 과거와 과거완료의 차이점을 학생들이 인식하도록 교과서에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C교과서에 두 시제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연습문제가 제시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Get동사가 수동태에 이용되는 빈도수를 살펴보기 위하여 코퍼스에서 수동태 현재를 'am/is/are p.p'와 'be p.p', 'get p.p', 수동태 과거를 'was/were p.p', 'got p.p'로 나누어 빈도수를 비교해 본 결과, 'get/got p.p'의 빈도수는 0.4% 내외로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COHA의 teach동사에서 'got p.p'가 쓰인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유의해야 할 점은 'get given', 'get told', 'get taught'와 같이 'get'을 수동조동사로 하여 give, tell, teach동사의 과거분사 형태와 함께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는 반면, 'get lost', 'get upset', 'get fired' 등은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이 세 동사의 'get p.p'의 비율을 전체 수동태 동사의 경우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LASD(LONGMAN Active Study Dictionary)에서 'get'은 7위의 다빈도 동사로 'get p.p'의 형태가 쓰인 비율은 11%로 나타났으며(이미경, 2012) 「Reader's Digest」와 「Short Plays」의 get수동태 비율은 각각 2.35%, 14.62%로 나타났다(조석중, 1992).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퍼스에서 세 동사의 수동조동사를 'be p.p'와 'get p.p'로 나누어 그 빈도수를 산출한 결과, 각각 99.6%, 0.4%로 나타났으며, 교과서에서 전체 수동태 문장의 수동조동사는 'be p.p' 96.15%, 'get p.p' 2.19%, 'become p.p' 0.74%, 사역수동태 0.93%로, 'get p.p'의 비율은 코퍼스보다는 5배 이상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2.19%로 역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사역수동태의 비율은 'become p.p'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grow p.p'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교과서에 따라서는 'get p.p'나 'become p.p', 사역수동태를 전혀 다루지 않은 교과서도 있어 학습자들의 수동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보다 다양한 유형의 수동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교과서마다 대체로 각 단원에 수동태 문장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문법파트에서 중점사항으로 수동태를 제시하고 있었으며 수동태 문장수에 있어서도 EFL환경의 한국학생들이 학습하기에는 충분한 양의 수동태가 제시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수동태와 능동태의 의미차이나 어떤 맥락에서 수동태가 쓰이는지의 부가적인 설명이 없었고 대부분 다양한 예문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으며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 전치사를 동반한 독립분사구문, 부사절의 분사구문, 사역수동태 등 다양한 형식의 수동태가 제시되고 있는 교과서는 N교과서가 유일하였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어에서는 거의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 4형식의 수동태 문장을 과연 원어민 화자들은 어느 정도로 사용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점에서 출발하였으며 대용량 원어민 코퍼스인 BNC, COCA, COHA를 분석도구로 하여 4형식 동사 중 give, tell, teach동사의 능동·수동태 비율 및 능동·수동태 별 시제와 장르에 따른 비율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 아울러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5종 총 10권에서 give, tell, teach 동사의 수동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교과서에 제시된 전체 수동태 동사의 비율 및 사용양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BNC, COCA, COHA를 이용하여 give, tell, teach동사의 능동·수동태 문장 비율을 살펴 본 결과, 평균 수동태 비율은 8.4%로 이는 한국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에게 말하여지다’, ‘~에게 (무엇인가) 주어지다’, ‘~에게 가르쳐지다’란 4형식의 수동태 문장을 원어민 화자들은 ‘be told’, ‘be given’, ‘be taught’와 같은 표현으로 심심찮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영어교과서에서 세 동사의 수동태 비율은 9.45%, 전체 수동태 비율은 9.1%로, 이는 코퍼스에서 위 세 동사의 수동태 비율인 8.4%와 유사한 수치를 보였고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 교과서 내 전체 수동태 문장수의 증가를 보였으며 교과서에 따라 수동태 비율은 최대 1.8배까지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교과서에 제시된 세 동사의 문어체에서의 수동태 비율은 구어체에서보다 약 6배 정도 높게 나타났고 전체 수동태 문장의 구어체, 문어체별 수동태 비율은 각각 5.67%, 11.04%로 구어체는 화자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반면, 문어체는 행위자체에 초점을 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하게 되므로 수동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교과서에 제

시된 소설에서는 작가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장르의 특성상 수동태 비율이 각각 1.19%, 2.14%로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코퍼스에서 장르별 빈도수는 give, tell동사 수동태의 경우 대체로 Academic과 News에서는 높은 비율로, Fiction과 Spoken에서는 낮은 비율로 나타나 교과서의 분석결과와 일치하고 있지만 teach동사의 경우에는 Spoken에서 오히려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 BNC의 Academic에서 낮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특이할 만한 점이다.

코퍼스에서 give, tell, teach 수동태 동사의 평균적인 시제별 빈도수는 현재> 과거> 현재완료> 진행> 과거완료> 미래 순으로 나타났고 tell동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BNC와 COCA에서 과거시제의 비율이 현재시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교과서에서 전체 수동태 동사의 시제별 빈도수는 현재> 과거> 현재완료> 미래> 진행> 과거완로의 순으로 나타나 코퍼스와 서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코퍼스와 교과서 모두에서 현재와 과거가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미래, 진행, 과거완료시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교과서도 있어 교과서에서 보다 다양한 수동태 시제를 제시하고 유의미한 활용에 이르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교과서에서 세 동사의 수동태의 시제별 빈도수를 살펴본 결과, give동사의 경우 lesson에서 ‘You will be given 2 minutes’ 라는 지시문이 자주 제시됨으로 인해 현재시제와 미래시제가 43.4%로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Tell동사의 경우 다른 두 동사와는 달리, 과거시제의 비율이 47.83%로 현재시제보다 2배 정도 높았고, 앞선 언급한 바와 같이 BNC와 COCA에서도 수동태 과거시제의 비율이 현재시제보다 1.7배 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흔히 대화에서 ‘듣는다’,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과거에 ‘어떤 얘기를 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영어에서도 같은 이유로 과거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여진다. Teach동사의 경우 능동태, 수동태를 합한 전체

빈도수가 현저히 낮았고 수동태의 비율도 5.48%로 제일 낮게 나타났는데, 그 중 현재시제가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었다.

코퍼스에서 세 동사의 진행형은 수동태보다 능동태에서 4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되어지고 있다’ 보다는 ‘~하고 있다’ 라는 표현으로 보통 능동태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코퍼스의 완료형을 살펴보면, 현재완료는 능동태보다 수동태에서 5배, 과거완료는 2.5배 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역사, 과학, 현안문제 기술시 수동태 완료시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코퍼스에서 세 동사의 수동태 미래시제는 ‘will be p.p’가 89.01%로 ‘going to be p.p’의 10.99%에 비해 압도적인 비율로 쓰이고 있었으나 예외적으로 COCA의 tell동사에서는 두 형태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코퍼스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Get p.p’의 빈도수는 코퍼스에서 세 동사의 분석결과 0.4%, 교과서에서 전체 수동태 동사의 분석결과 2.19%로 나타나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고 양쪽 모두에서 ‘be p.p’가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으며 ‘grow p.p’는 여러 문헌에서 언급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교과서에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한편, get수동태와 be수동태와의 의미차이를 설명한 교과서는 없었고 get수동태나 become수동태, 사역수동태가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교과서도 있어 적합한 예문과 함께 다양한 수동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교과서 본문에서 구어체보다는 문어체가 현저히 많이 제시되어 있었으며 상당수의 구어체 문장은 본문이 아니라 listening script로 인해 추가된 것이었다. 교과서에 speaking부분이 따로 제시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너무 짧거나 연습문제처럼 제시되어 있어 다소 딱딱한 느낌이 들었으며 교과서 본문에 재미있는 삽화와 함께 충분한 양의 dialogue를 수동태 표현과 함

게 제시하고 작활동을 통해 말해보게 함으로써 즐거운 학습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대체로 다양하면서 유익하였고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에 부족함이 없어보였으며 교과서 본문의 전체 수동태 문장수에 있어서도 학습하기에 충분한 양의 수동태가 제시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문법파트의 중점사항으로 수동태를 다룰 때 수동태의 의미, 쓰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으며 분사나 분사구문, 사역수동태 등 다양한 수동태를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는 1권 뿐이었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문맥에서 다양한 수동태 형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단순히 문법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자연스러운 표현들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의 교과내용을 구성할 때 실제적이고 다양한 유형의 수동태를 맥락에 맞게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EFL상황에서 교과서는 일차적인 학습의 매개체로써 새로운 언어의 변화와 흐름을 수용하고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최근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언어학 연구가 확장되면서 외국어 교수학습 분야에서도 코퍼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해서는 원어민들의 실제적인 언어사용용례를 담고 있는 교재의 편찬이 필수적이며 외국어학습에 코퍼스를 활용하는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원어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언어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코퍼스 색인(concordance lines)을 통하여 원어민이 특정단어, 어구, 혹은 문장을 어떤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학습자의 발화나 작문 등을 텍스트화한 학습자 코퍼스를 직접 분석해보거나 대용량의 원어민 코퍼스와 비교해 봄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교사는 다양한 문맥 속에서 여러 가지 형식의 수동태 문장을 제시하고 원어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집합체인 코퍼스를 보조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언어학습을 지향하고 수업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광윤. (2005). 한국적 언어학과 영어 코퍼스의 활용. *영어학연구*, 19, 1-19.
- 곽혜선. (2006).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수동태 사용에 관한 코퍼스 기반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혁승, 정채관. (2012). *코퍼스 언어학 입문*. 서울: 한국문화사.
- 권혜원. (2008). *Get 분석: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상옥. (1996). *영어와 한국어의 수동태에 대한 대조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김성중. (2000). *영어수동구문 용법에 관한 연구*. 서원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 김원석. (2004). *영어수동문과 국어피동문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김원영. (2004). *현행 고교 영어 I 교과서의 수동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인. (2002). *영어수동태 구문의 습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노세익. (2007). *Chart diagram*. 서울: 와이엘북.
- 문용. (2014). *고급 영문법 해설*. 서울: 박영사.
- 박미나. (2008).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의 격식성과 수동태 연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소연, 윤현숙. (2009). 코퍼스를 활용한 영어 어휘학습의 효과연구. *영어영문학연구*, 51(3), 145-165.

- 박지하. (1971). 수동태의 형식과 의미: 수동태의 태와 성. *부산시 교육연구*, 29, 125-139.
- 박철. (2004). 영어시제와 相의 교수-학습에 관한 제언. *영어교육연구*, 30, 55-74.
- 심춘화. (2012). '부사+형용사' 연어의 코퍼스 기반 분석.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양위. (2007). 7차 중학교 교과서 영어 수동태에 대한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나리. (2012). 코퍼스 기반 부사 유의어 사용양상 분석: 중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경민. (2008). 7차 교육과정의 중고등학교 교과서 분석: 수동태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광재. (2013).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에 나타난 관계부사 사용에 관한 코퍼스 기반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미경. (2012). 수능 외국어영역에 나타난 *make, get, take* 연어의 코퍼스 분석.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미현. (2013). 중3 영어 교과서에 나타나는 수동 구문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영주. (2006). 수동태의 담화·기능적 접근을 통한 영어교과서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은주. (2008). 영어교육과 응용언어학 분야에서 수행된 코퍼스 기반 연구의 분석. *한국영어교육학회*, 63(2), 203-306.
- 이정돈. (2011). 한국인학습자의 영어수동태 오류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재형. (2003). *Get 수동태의 조건*.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한창. (2003). *영어수동태에 관한 연구-미국 초등학교 reading 분석-*.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나운. (2006). *한국대학생의 영어 수동태 오류분석*.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임진희. (2004). *오류분석을 통한 영어수동문 지도방안*.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전정희. (2002). *영어수동태에서의 오류분석*.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보현. (2012).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사용된 기본어휘에 대한 코퍼스 기반 분석*.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희자. (1998). *담화와 문법*.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조석중. (1992). *Get수동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논문집, 30, 95-112.
- 조성식. (1974). *영어문법론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_\_\_\_\_. (1998). *영문법론*. 서울: 한국문화사.
- 한아람. (2011). *고등학교 영어독해와 작문교과서의 수동태 분석*.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 현윤정. (2001). *영어수동태 연구 및 활용분석*.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현한나. (2008). *한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수동태 습득양상 연구: 의미, 형태, 활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서영. (2002). *영어 수동태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선이, 오선영. (2008). 한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코퍼스 기반 어휘 및 문법학습의 효과. *영어교육연구*, 20(1), 261-283
- 황석복. (2001). *효과적인 수동태 지도안 연구: 중학교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Alexander, L. G. (1988). *Longman English Grammar*. London:

Longman.

- Biber, D., Conrad, S., & Reppen, R. (eds.) (1998). *Corpus Linguistics: Investigating Language Structure and U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linger, D. (1977). *Meaning and Form*. London: Longman.
- Bullon et al. (1990). *Collins Cobuild English Grammar*. London: Harper Collins Publishers.
- Candlin, C. N. (1979). The status of pedagogical grammars. In C.J. Brumfit & K. Johnson (eds.), *The communicative approach to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arter, R., & McCarthy, M. (1997). 'Get Passives in a Conversational Corpus.'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 Orlando, March.
- Celce-Murcia, M., & Larsen-Freeman, D. (1983). *The Grammar Book: An ESL/EFL Teacher's Course*. Cambridge: Newberry House.
- \_\_\_\_\_. (1999). *The Grammar Book*. Boston: Heinle & Heinle.
- Chappell, H. (1980). Is the Get-passive Adversative?. *Papers in Linguistics*, 13, 411 - 452.
- Chomsky, N. (1957). *Syntactic Structures*. The Hague/Paris: Mouton.
- \_\_\_\_\_.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 Crume, G. O. (1931). *Syntax*. Boston: D. C. Heath and Company.
- \_\_\_\_\_. (1935). *Parts of speech and accidence*. New York: D. C. Heath and Company.

- Fries, C. C. (1940). *American English Grammar*.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Inc.
- Greenbaum, S., & Quirk, R. (1990). *A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Group UK Ltd.
- Greenbaum, S., Quirk, R., Leech, G., & Svartvik, J. (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New York: Seminars Press Inc.
- \_\_\_\_\_.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Huddleston, R. (1971). *The Sentence in Written English*.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n A. van Ek, & Nico J. Robot (1984). *The Student's Grammar of English*. Glasgow: Bell and Bain Ltd.
- Jeffrey, P. K. (1995). *English Grammar: Principles and Facts* (2nd ed.).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Jespersen, O. (1933). *Essential of English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 \_\_\_\_\_. (1954). *A Modern English Grammar IV*.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 Kennedy, G. (1998). *An Introduction to Corpus Linguistics*. London: Longman.
- Kuiper, K., & Allan, W. S. (1996). *An Instruction to English Language: sound, word, sentence*.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Lakoff, G. (1968). *Repartee: Negation, Conjunctions, and Quantifiers*. Unpublished paper. Harvard University.
- Larsen-Freeman, D. (2001). *Teaching Language: From Grammar to Grammaring*. Boston: Heinle & Heinle.
- Leech, G. (1991). *The state of the art in corpus linguistics*. London: Longman.
- \_\_\_\_\_. (1992). *Corpora and theories of linguistic performance*. Berlin: Mouton de Gruyter.
- Leech, G., & Svartvik, J. (1975). *A Communicative Grammar of English*. London: Longman.
- McCarthy, M., & O' Dell, F. (2005). *English Collocations in u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ishimoto, Y. (1971). *Über das Passiv im Indogermanischen und im Finnisch-Ugrischen unter Berücksichtigung des Japanischen*. Unpublizierte Dissertation der Humbolt-Universität zu Berlin.
- O'Keeffe, A., McCarthy, M., & Carter, R. (2007). *From corpus to classro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berts, P. (1954).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Harper & Row Ltd.
- Roderick, A. J. (1993). *English syntax*.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cott, M., & Tribble, C. (2006). *Textual Patterns: Key Words and Corpus Analysis in Language Educa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Shintani, M. (1979). *The Frequency and Usage of the English*

- Passive*. Diss. UCLA.
- Sinclair, J. M. (1991). *Corpus, Concordance, Collo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tageberg, N. C. (1977). *An Introductory English Gramma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Svartvik, J. (1966). *On voice in the English Verb*. The Hague: Mouton.
- Teubert, W., & Krishnamurthy, R. (eds.) (2007). *Corpus Linguistics: Critical Concepts in Linguistics 7 Volumes*. London: Routledge.
- Tomson, A. J., & Martinet, A. V. (1986). *A practical English Grammar*.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 Watson, R. E. (1993). *Active or Passive Voice: Does it Matter?*. Denton: University of North Texas.
- Willis, J. (1996). *A framework for task-based learning*. London: Longman.

# ABSTRACT

## A Corpus-Based Analysis of Passive Voice

### With Reference to *give, tell, teach*

Park, Jin Hee

English Language Education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frequently native speakers use passive sentences such as ‘We *are taught* English by Mr. Johns’, ‘We *are given* some oranges by her’ and ‘I *was told* that she is very kind by him’, which are rarely used in Korean.

To perform this study, native corpus databases BNC, COCA, COHA are used to analyse the frequency of the passive voice of *give, tell* and *teach*. The frequency arrived at is an average of 8.4% of sentences in which these words were used, which means these passive forms are being used often by native speakers in real life. In addition, 10 High School textbooks based on the revised 7th curriculum were selected at random to analyse how the passive voice is presented and taught through the English textbooks. The result shows the frequency of the passive voice in the textbooks is 9.1%, and the frequency of the passive voice of *give, tell* and *teach* is 9.45%, approximately the same as found

in the native corpus data.

The corpus data shows that the passive voice forms of *give* and *tell* are used most frequently in *academic English* and *news*, but the frequency in *fiction* and *spoken English* is very low. This corresponds to a similar pattern in English textbooks, in which the frequency of the passive voice in written English is twice as much as in spoken English and the frequency of the passive voice of *give*, *tell* and *teach* in written English is six times as much as in spoken English. Also, in *fiction* found in the textbooks, the frequency of the passive voice is quite low. On the contrary, the passive voice of *teach* is used most frequently in *spoken English*, but the frequency in *academic English* in BNC is very low.

The frequency order of the passive voice of *give*, *tell* and *teach* according to tense appears to be 'present> past> present perfect> progressive> past perfect> future' in the native corpus. The frequency order of the passive voice of the sentences according to tense is found to be 'present> past> present perfect> future> progressive> past perfect' in English textbooks, which shows a pattern similar to the one in the native corpus. An exceptional case is that the frequency of the passive voice of *tell* in past tense is higher than in present tense in the native corpus and in English textbooks because the fact that 'we have heard something' is already true when we say that to somebody. The frequency order of the passive voice of *give* in future tense is exceptionally high in English textbooks because the directions such as 'You will be given 2 minutes' are often presented in lessons. Looking at the frequency of the passive auxiliary verb, *be p.p* occurs 99.6% of the

time while *get p.p* occurs 0.4% of the time in the native corpus. In English textbooks, the frequency of *be p.p* is 96.15% while that of *get p.p* is 2.19%; *become p.p* comes in at 0.74%, *causative p.p* at 0.93% and *grow p.p* at 0%, which means *be p.p* is used with overwhelming frequency in both places and the frequency of *get p.p* is very low.

I found some significant facts that should be addressed. There are no explanations of when and why the passive voice must be used and only limited examples of passives appear in the textbooks. In some textbooks, 'future, progressive, *past perfect*', *get p.p*, *become p.p* and causative passives are not presented at all, and there are no books that explain the semantic difference between *be p.p* and *get p.p*.

In an EFL setting, the English textbooks are the most important materials which are used in the class. So practical and various usages of the English passive in a variety of contexts need to be presented systematically and gradually in the textbooks. Authentic expressions also need to be reflected in the textbooks so that learners can experience enough input to use them successfully.

With the development of computer technology, it is possible for us to have access to a huge database of the language that native speakers actually use. When it comes to making textbooks and materials to help learners use and utilize passive voice, writers and teachers should take into special consideration the results and findings of real data in corpora and teachers should try to provide students with authentic materials based on corpus data so that students not only understand English passive more easily but also make use of it more effectively.